

# 중국의 주요 지역별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2018 지방양회 분석을 중심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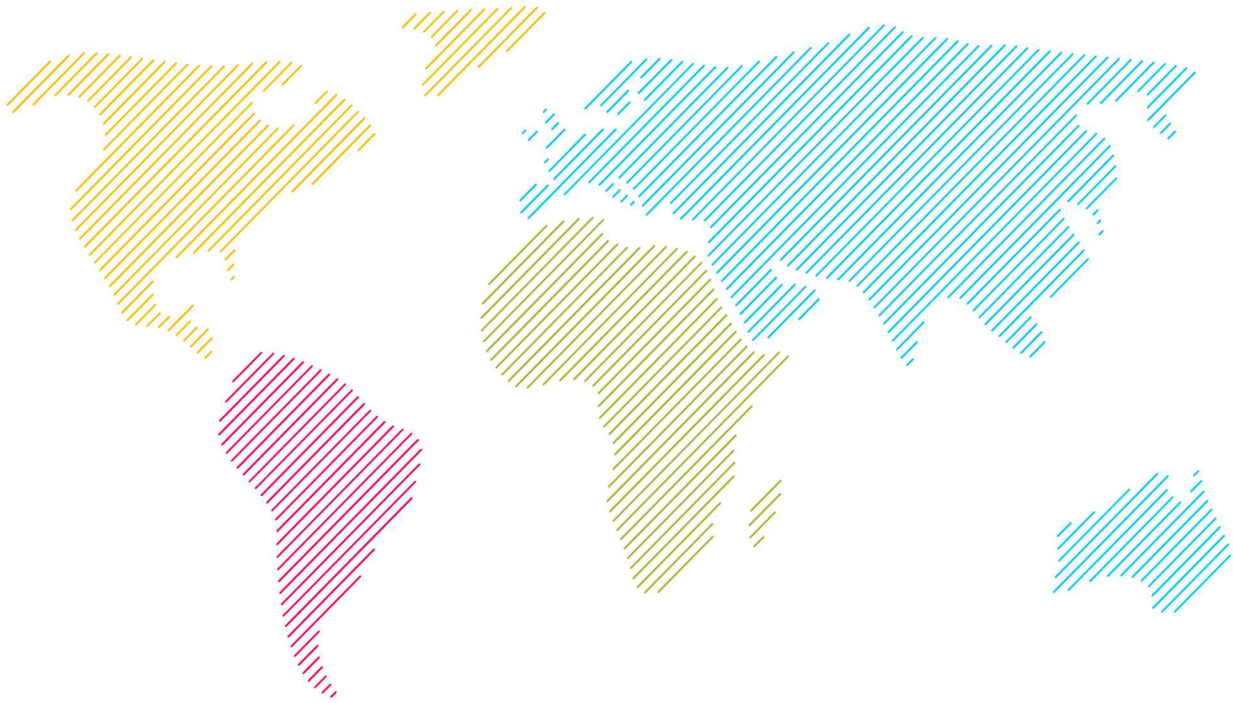
이상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박진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전문연구원  
최지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최재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 중국의 주요 지역별 2018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 - 2018 지방양회 분석을 중심으로 -

### 요약

- ▶ 2018년 1월 안후이를 필두로 중국 각지에서 지방양회를 개최, 지방정부 행정수장에 대한 인선과 함께 2017년 경제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 및 2018년도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
  - 각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가운데 △ 공급측 개혁의 심화 △ 3대 난제(빈곤·중대 리스크·생태환경 오염)의 해결 △ 실물경제 진흥 △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
  -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어느 해보다 전면적인 개방정책의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는 △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 투자 분야 개방 확대와 관련한 제도개혁 △ 대외개방 시범정책 추진 △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된 대외경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2017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소비 증가율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공급측 개혁이나 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둔 지방정부의 정책기조 및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목표성장률은 소폭 하향 조정됨.
- ▶ 각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 방향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전략사업의 추진, 지역협력 발전, 신성장동력 모색, 산업구조조정 등을 2018년 핵심 업무로 제시함.
  - 동북지역 가운데 베이징은 징진지(京津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숭안(雄安)신구 본격 조성, 상하이선 자유무역항(自由贸易港) 건설, 광둥은 홍콩·마카오와 단일 경제권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고, 산둥과 장쑤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스마트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음.
  - 중부지역은 연해지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후베이는 창장(长江)신도시를 푸둥(浦东)·숭안신구처럼 발전시킬 계획이며 허난성은 기술혁신·기술유치를 통해 장비제조·전자정보·식품가공업 등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할 계획
  - 서부지역은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핵심 정책이 상이한 상황으로, 충칭은 기술혁신과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었고, 쓰촨은 내부적으로는 불균형 해소 및 빈곤 해결, 외부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혁신·창업 인재 유치 및 일대일로 협력 확대를 강조했으며, 산시(陕西)는 첨단제조업·화학공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고도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
  - 동북지역은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핵심 산업 발전에 주력할 계획으로, 랴오닝성은 중독(선양) 첨단산업기지 내 장비제조업 및 신형 원자재·현대농업 기지를, 지린성은 신에너지자동차·의약건강·광전자정보 등 분야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거나 시범정책을 활용하는 전략,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촉진과 성공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전략, 양국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이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첨단산업·기술·서비스업 부문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발전전략·한중 FTA·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장쑤, 산둥, 허난 등의 지역은 질적 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IT, 첨단장비제조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 확대 가능



## 차 례

1. 2018년 지방양회의 주요 이슈
2. 2017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18년 경제정책 특징
  - 가. 2017년 지역별 경제성장 비교
  - 나. 2018년 경제정책의 지역적 특징
3. 지역별 2018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
  - 가. 동부
  - 나. 중부
  - 다. 서부
  - 라. 동북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 1. 2018년 지방양회의 주요 이슈

■ 중국의 지방정부는 1월 말 안후이(安徽)·신장(新疆)을 필두로 성급 단위(성·직할시·자치구)에서 지방양회를 개최, 지방 정부 행정수장을 선출하고 2018년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

- 지방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지칭하며, 매년 초에 개최되는 해당 지방의 최대 정치 행사임.
- 지방양회에서는 시장(市長)·성장(省長) 등 지방정부 행정수장을 새롭게 임명하고 전국 양회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하는 인사 조정이 이루어지는 한편, 지방정부의 지난해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확정함.

■ 올해 지방양회의 지도부 인선은 △ 60後(1960년 이후 출생자) 지도부의 증가 △ 금융계 인사의 진출 △ 저장성 출신 인사의 약진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남.<sup>1)</sup>

- 시진핑 정부 집권 2기의 출범과 함께 지방 지도부의 인선이 이루어지면서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충칭(重慶)·산둥(山東)·광둥(廣東) 등 11개 지역의 행정수장이 교체됨.
- 베이징, 텐진, 충칭 등 직할시 시장(市長)이 모두 60後 인사로 구성되었고 11개 지역의 신임 부시장·부성장 역시 모두 60後로 교체됨.
- 베이징 부시장에 인민은행 부행장이, 상하이시 부시장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인사가 임명되는 등 지방정부 주요 요직에 금융 전문가들이 다수 진출
- 저장(浙江)성은 시진핑 주석이 당서기로 근무하며 정치적 기반을 다진 지역으로, 2018년 지방정부 지도부 인선에 다수의 저장성 출신 인사들이 상하이 시장, 상하이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등으로 발탁

■ 2018년 각 지방의 경제정책 기조로 안정적인 성장(稳中求进)과 질적 성장(高质量发展)이 제시된 가운데 주요 경제정책으로 공급측 개혁이 지난해에 이어 재차 강조되었으며 그 밖에 △ 3대 난제 해결(三大攻坚战)<sup>2)</sup> △ 실물경제 진흥 △ 개혁·개방의 심화 등이 제시됨.<sup>3)</sup>

- 각 지방정부는 양회에서 이뤄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양회 참석자들 간 질적 성장의 의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많은 지방정부가 질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2018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공급측 개혁의 심화와 함께 중대 리스크·빈곤·생태환경의 문제를 포괄하는 3대 난제의 해결을 채택함.
- 광둥, 허난(河南), 지린(吉林), 푸젠(福建) 등이 공급측 개혁 심화를,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네이멍구(內蒙古) 등의 지역이 3대 난제 해결을 첫 번째 임무로 제시
- 상하이와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함께 자유무역시험구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자유무역항의 조성, 베이징과 허베이는 해당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급 지역발전전략인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2018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역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제를 제시

1) 「14位“60后”副部长迎新两会」(2018. 1. 21), 『凤凰网』; 「중국 지방 지도부에 韓 ‘586세대급’ 류링허우가 주력 부상」(2018. 2. 5), 『연합뉴스』.

2) 3대 난제 해결은 △ 빈곤 해결 △ 금융·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 생태환경 보호가 주요 내용임.

3) 「地方两会透露经济增速很可能回落」(2018. 1. 30), 『华泰证券』.

■ 금년 지방양회 개최 직전에 지린, 윈난(云南), 텐진 등 일부 지방의 통계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역내총생산 (GRDP) 성장률로 지방경제 발전 수준과 지방정부 지도층의 업적을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양회 기간에 이루어짐.

- 중국의 지방정부는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GRDP, 산업생산, 재정수입 등의 통계수치를 부풀려 작성하는 일이 만연했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GRDP 합계가 전국 GDP를 크게 상회하는 현상이 매년 발생함.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통계조작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12월 지린과 윈난 등지의 10개 현(縣)·시(市)에서 15억 5,000만 위안에 달하는 재정수입이 부풀려졌음이 드러난 바 있으며, 올해 1월 네이멍구는 2016년의 산업생산과 재정수입을 각각 40%와 26% 부풀렸음을 시인함.<sup>4)</sup>
- 네이멍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GRDP 성장률을 우선시하는 발전관을 탈피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민생 개선, 환경보호와 사회발전 등의 다양한 질적 지표를 활용해 지방정부의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 하이난에서는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역내 시·현의 지도층에 대한 업적평가에서 GRDP 성장률 지표를 삭제함.<sup>5)</sup>

## 2. 2017년 지역별 경제성장 및 2018년 경제정책 특징

### 가. 2017년 지역별 경제성장 비교

■ [2017년 실적] 2017년 전국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한 가운데 각 지역(省)의 성장률은 대체로 경제가 낙후된 중·서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의 성장률은 낮은 동저서고(東低西高)의 특징을 유지(표 1 참고)

- 전체 31개 지역 중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둥, 쓰촨 등 17개 지역이 2017년 양회에서 제시한 목표성장률을 달성<sup>6)</sup>
  - 지난해 각 지방정부는 경제구조 개혁,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해 2017년 목표성장률을 2016년의 실적치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제시한 바 있으나 서부와 동북의 많은 지역들이 목표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보임.
- 31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구이저우(10.2%)와 시짱(10.0%)으로, 이 지역들은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음에도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
  - 중국 내 경제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구이저우와 시짱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증대, 빅데이터 및 문화관광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와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반면에 텐진, 랴오닝, 산둥, 후베이, 충칭 등 14개 지역이 목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목표치와 실적치 간 격차는 텐진(-4.4%p), 랴오닝(-4.0%p), 간쑤(-3.9%p), 네이멍구(-3.5%p) 순으로 크게 나타남.
  - 텐진과 네이멍구, 간쑤는 투자와 재정수입 등에서 부풀려 보고되었던 통계데이터를 정상화하면서 2016년 대비 투자와 산업생산 증가율이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성장률도 크게 하락

4) 「중국 지방 GDP 거품빼기…올해 성장목표 대거 하향(2018. 1. 26), 『연합뉴스』.

5) 「地方两会重申“不以GDP论英雄”释放积极信号(2018. 1. 29), 『东方网』; 「地方两会谋划经济高质量发展 海南取消部分市县GDP考核(2018. 1. 29), 『人民日报』.

6) 2016년의 경우 목표성장률을 달성한 지역은 총 21곳이었음.



- 랴오닝의 경우 2017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산업생산 부진, 고정자산투자 급감, 산업구조 전환 지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 지역별 경제규모를 보면 2016년 3조 위안을 넘어선 지역은 9개 지역(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쓰촨, 후베이, 허베이, 후난)이었으나 2017년 푸젠, 상하이가 새롭게 추가되어 총 11개 지역으로 증가(경상가격 기준)
- 광둥성은 29년 연속 중국 내 최대 경제규모(2017년 8조 9,879억 위안)를 차지하였으며 광둥, 장쑤, 산둥 세 지역은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 16위권 이내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로 성장<sup>7)</sup>
- 경제규모가 가장 큰 지역(광둥)과 가장 작은 지역(시짱) 간 68.6배의 규모 격차가 존재하나 2010년(89.4배)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들면서 지역 간 경제성장의 양극화 문제는 매우 더디기는 하나 소폭 완화되는 추세

표 1. 중국의 지역(省)별 주요경제지표 비교

(단위: 십억 위안, %)

| 권역  | 지역(省)     | 지역내총생산<br>(GRDP, '17년) | GRDP 성장률   |            |            | 산업별 성장률('17년) |          |          | 소비<br>증가율<br>( '17년) | 투자<br>증가율<br>( '17년) |
|-----|-----------|------------------------|------------|------------|------------|---------------|----------|----------|----------------------|----------------------|
|     |           |                        | '17년<br>목표 | '17년<br>실적 | '18년<br>목표 | 1차<br>산업      | 2차<br>산업 | 3차<br>산업 |                      |                      |
| 전국* |           | 82,712.2               | -          | 6.9        | 6.5 전후     | 3.9           | 6.1      | 8.0      | 10.2                 | 7.2                  |
| 동부  | 베이징(北京)   | 2,800.0                | 6.5        | 6.7        | 6.5        | -6.2          | 4.6      | 7.3      | 5.2                  | 5.3                  |
|     | 톈진(天津)    | 1,859.5                | 8.0        | 3.6        | 5.0        | 2.0           | 1.0      | 6.0      | 1.7                  | 0.5                  |
|     | 허베이(河北)   | 3,596.4                | 7.0        | 6.7        | 6.5        | 3.9           | 3.4      | 11.3     | 10.7                 | 5.3                  |
|     | 산둥(山东)    | 7,267.8                | 7.5        | 7.4        | 7.0        | 3.5           | 6.3      | 9.1      | 9.8                  | 7.3                  |
|     | 상하이(上海)   | 3,013.4                | 6.5        | 6.9        | 6.5        | -9.5          | 5.8      | 7.5      | 8.1                  | 7.2                  |
|     | 장쑤(江苏)    | 8,590.1                | 7.0~7.5    | 7.2        | 7.0        | 2.2           | 6.6      | 8.2      | 10.6                 | 7.5                  |
|     | 저장(浙江)    | 5,176.8                | 7.0        | 7.8        | 7.0        | 2.8           | 7.0      | 8.8      | 10.6                 | 8.6                  |
|     | 푸젠(福建)    | 3,229.8                | 8.5        | 8.1        | 8.5        | 3.6           | 6.9      | 10.3     | 11.5                 | 13.9                 |
|     | 광둥(广东)    | 8,987.9                | 7.0        | 7.5        | 7.0        | -             | -        | -        | 10.0                 | 13.5                 |
|     | 하이난(海南)   | 446.3                  | 7.0        | 7.0        | 7.0        | 3.6           | 2.7      | 10.2     | 11.4                 | 10.1                 |
| 중부  | 산시(山西)    | 1,497.4                | 5.5        | 7.0        | 6.5        | -             | -        | -        | 6.8                  | 6.3                  |
|     | 허난(河南)    | 4,498.8                | 7.5        | 7.8        | 7.5        | 4.3           | 7.3      | 9.2      | 11.6                 | 10.4                 |
|     | 안후이(安徽)   | 2,751.9                | 8.5        | 8.5        | 8.0        | 4.0           | 8.6      | 9.7      | 11.9                 | 11.0                 |
|     | 장시(江西)    | 2,081.9                | 8.5        | 8.9        | 8.5        | 4.4           | 8.3      | 10.7     | 12.3                 | 12.3                 |
|     | 후베이(湖北)   | 3,652.3                | 8.0        | 7.8        | 7.5        | 3.6           | 7.1      | 9.5      | 11.1                 | 11.0                 |
|     | 후난(湖南)    | 3,459.1                | 8.0        | 8.0        | 8.0        | 3.6           | 6.7      | 10.3     | 10.6                 | 13.1                 |
| 서부  | 네이멍구(内蒙古) | 1,610.3                | 7.5        | 4.0        | 6.5        | -             | -        | -        | 6.9                  | -7.2                 |
|     | 광시(广西)    | 2,039.6                | 7.5        | 7.3        | 7.0~7.5    | 4.1           | 6.6      | 9.2      | 11.2                 | 12.8                 |
|     | 충칭(重庆)    | 1,950.0                | 10.0       | 9.3        | 8.5        | 4.0           | 9.5      | 9.9      | 11.0                 | 9.5                  |
|     | 쓰촨(四川)    | 3,698.0                | 7.5        | 8.1        | 7.5        | 3.8           | 7.5      | 9.8      | 12.0                 | 10.6                 |
|     | 구이저우(贵州)  | 1,354.1                | 10.0       | 10.2       | 10.0       | 6.7           | 10.1     | 11.5     | 12.0                 | 20.1                 |
|     | 윈난(云南)    | 1,653.1                | 8.5        | 9.5        | 8.5        | -             | -        | -        | 12.2                 | 18.0                 |
|     | 시짱(西藏)    | 131.1                  | 11.0       | 10.0       | 10.0       | -             | -        | -        | 13.9                 | 23.8                 |

7) 2017년 연평균 위안/달러 환율 6.7518을 적용할 경우 GRDP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지역은 광둥(1조 3,312억 달러), 장쑤(1조 2,722억 달러), 산둥(1조 764억 달러) 세 지역이었음. 2017년 경제규모 세계 16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의 GDP는 1조 110억 달러였음(IMF 추산 기준; IMF DB).

표 1. 계속

| 권역 | 지역(省)     | 지역내총생산<br>(GRDP, '17년) | GRDP 성장률   |            |            | 산업별 성장률('17년) |          |          | 소비<br>증가율<br>('17년) | 투자<br>증가율<br>('17년) |
|----|-----------|------------------------|------------|------------|------------|---------------|----------|----------|---------------------|---------------------|
|    |           |                        | '17년<br>목표 | '17년<br>실적 | '18년<br>목표 | 1차<br>산업      | 2차<br>산업 | 3차<br>산업 |                     |                     |
| 서부 | 산시(陝西)    | 2,189.9                | 8.0        | 8.0        | 8.0        | 4.6           | 7.9      | 8.7      | 11.8                | 14.6                |
|    | 간쑤(甘肅)    | 767.7                  | 7.5        | 3.6        | 6.0        | 5.4           | -1.0     | 6.5      | 7.6                 | -40.3               |
|    | 칭하이(青海)   | 264.3                  | 7.5        | 7.3        | 7.0        | 4.9           | 7.2      | 7.9      | 9.3                 | 10.5                |
|    | 닝샤(寧夏)    | 345.4                  | 8.0        | 7.8        | 7.5        | 4.3           | 7.0      | 9.2      | 9.5                 | 3.0                 |
|    | 신장(新疆)    | 1,092.0                | 7.0        | 7.6        | 7.0        | -             | -        | -        | 7.7                 | 20.0                |
| 동북 | 랴오닝(遼寧)   | 2,394.2                | 6.5        | 2.5        | 6.5        | -             | -        | -        | 2.9                 | 0.1                 |
|    | 지린(吉林)    | 1,528.9                | 7.0        | 5.3        | 6.0        | 3.3           | 3.9      | 7.5      | 7.5                 | 1.4                 |
|    | 헤이룽장(黑龍江) | 1,620.0                | 6.0~6.5    | 6.4        | 6.0        | 5.4           | 2.9      | 8.7      | 8.3                 | 6.2                 |

주: \* 전국 GDP는 지방통계국이 발표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의 합이 아니라 국가통계국에서 별도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전국 데이터로, 물가 수준과 집계되는 항목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GRDP의 합과 불일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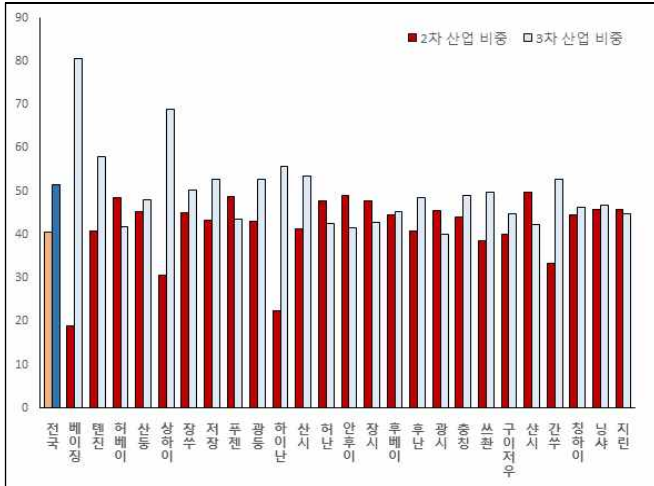
자료: 각 성(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報告)」; CEIC DB.

■ [성장 요인] 중국 지역경제의 주요 성장요인은 산업측면에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 수요측면에서는 높은 소비 증가율이며, 대부분의 지역은 내수확대에 기반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산업별 성장률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3차 산업의 성장률이 2차 산업을 상회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임(표 1 참고).
  -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산업별 부가가치가 발표된 25개 지역 중에서 17개 지역에서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특히 베이징(80.6%)과 상하이(69.0%)가 중국경제의 서비스화를 주도(그림 1 참고)
  - 2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산시(49.8%), 안후이(49.0%), 푸젠(48.8%) 등은 여전히 산업화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성장동력 중의 하나였으나, 이 지역들도 3차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
-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2013년을 전후해 중국은 수출과 투자 위주의 성장에서 소비 위주의 성장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경제가 발달한 동부지역이 대체로 소비 증가율이 높았던 반면 중·서부 내륙지역은 투자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여전히 투자 주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그림 2 참고).
  - 소비 증가율이 투자 증가율을 상회한 지역은 상하이, 산둥, 장쑤, 충칭, 쓰촨 등 20개 지역이었으며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던 지역은 베이징, 광둥, 푸젠, 구이저우 등 11개 지역이었으며, 특히 구이저우와 시짱, 신장은 투자 증가율이 20%를 상회
  - 서부지역의 경우 서부대개발과 일대일로 전략의 시행에 따른 인프라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였으나 간쑤(-40.3%), 네이멍구(-7.2%), 랴오닝(0.1%), 톈진(0.5%)은 투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면서 성장 둔화를 초래

그림 1.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산업별 비중(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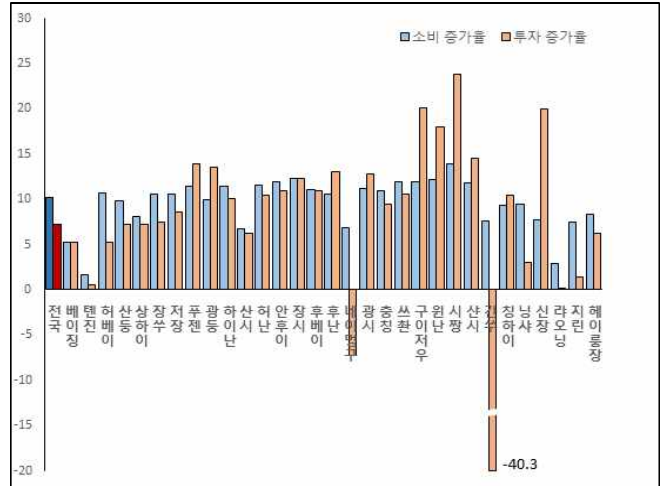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각 지역(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 CEIC.

그림 2. 지역(省)별 소비 및 투자 증가율(2017년)

(단위: %)



자료: CEIC.

- 고정자산투자 확대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채택했던 주요한 경기부양 수단이었으나 중국이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고정자산투자 규모를 점차 축소하고 있음.
- 2018년 고정자산투자의 목표증가율을 제시한 22개 지역 중 17개 지역이 전년대비 목표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권역별로는 서부지역의 목표증가율이 2017년 대비 4.6%p 하향 조정되면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sup>8)</sup>
-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재정수입 목표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반면 목표성장률이나 투자의 목표증가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투자에 의존했던 기존 성장모델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제운용에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경제구조 개혁과 안정적인 성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목표성장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적으로 성장보다 공급측 개혁이나 리스크 해소에 중점을 둔 지방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은 2017년 성장률 실적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2018년 목표성장률을 제시

- 2017년 전국 GDP 성장률이 6년 연속 하락 후 처음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성장률(실적치) 대비 2018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지역이 20곳에 달한 반면 동일한 성장률을 제시하거나 상향 조정한 지역은 각각 5곳과 6곳에 불과해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 하방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냄.<sup>9)</sup>
-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지역은 윈난(-1.0%p)이었으며 이어서 충칭(-0.8%p), 저장(-0.8%p), 쓰촨(-0.6%p), 신장(-0.6%p) 등도 목표성장률을 하향 조정
- 다만 각 지역의 하향 조정 폭은 1%p 이하로 소폭 조정되었는데, 이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발전방식의 전환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둔 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임.<sup>10)</sup>

8) 李超程强(2018), 「地方两会透露经济增速很可能回落-区域经济研究系列之十二」, 『华泰证券』.

9) 반면에 연도별 목표성장률을 비교하면 2017년 대비 2018년 목표성장률은 하향 조정 12개 지역, 유지 18개 지역, 상향 조정 1개 지역(산시성)으로, 특히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지역은 텐진(8.0% → 5.0%)이었음. 권역별로는 동북지역과 서부지역이 2018년 목표성장률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지역들은 2017년 목표성장률을 2016년 대비 각각 0.37%p, 0.14%p 상향 조정한 데 반해 2018년에는 2017년 대비 각각 0.27%p, 0.42%p 낮은 목표치를 제시함(산술평균 기준).



- 반면에 랴오닝(4.0%p), 네이멍구(2.5%p), 간쑤(2.4%p), 톈진(1.4%p) 등은 2017년 성장률보다 높은 목표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이 지역들은 2017년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이어서 올해 경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2018년 GRDP 목표성장률을 2017년 실적치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제시함에 따라 각 지역의 고정자산투자자에 대한 목표증가율 역시 2017년 실적치에 비해 하향 조정
- 2017년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감소했던 간쑤, 네이멍구, 톈진, 지린 등의 지역이 2018년 고정자산투자의 목표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반면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전년도 실적에 비해 낮은 목표치를 제시
- 서부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수요가 반영되면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의 목표치가 15% 수준에 달함.
- 특히 간쑤의 경우 2017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40.3%를 기록했는데, 투자 감소로 전통 산업구조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지체되어 공업부가가치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의 급락을 초래

## 나. 2018년 경제정책의 지역적 특징

■ 각 지방정부는 2017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안정적인 성장(稳中求进)과 질적 성장(高质量发展)이라는 정책 목표를 따르되 공급측 개혁의 심화, 3대 난제(三大攻坚战) 해결, 실물경제 진흥,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세부 정책과제로 선정<sup>11)</sup>

- 2017년에 이어 대부분의 지역이 공급측 개혁의 심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함으로써 무리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발전방식의 전환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계획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공급측 개혁의 심화를 8대 중점 목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부 정책으로 제조업 강국 건설 및 첨단제조업의 발전 가속화, IT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현대서비스업의 발전, 공급과잉 및 재고 해소, 부채 축소, 기업의 원가 절감 등을 제시
- 아울러 각 지방정부는 양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주요 과제를 채택하되 지역별 특수성과 경제현안을 고려한 최우선 정책과제를 선정
- 톈진, 장쑤, 광둥, 산시 등은 공급측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 고도화, 혁신에 기반한 공급체계의 질적 제고, 성장동력의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
- 후베이, 네이멍구, 간쑤, 칭하이, 닝샤 등 경제발전이 지체된 지역은 2018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중대 리스크, 빈곤, 생태환경 오염 등 3대 난제의 해결에 주력
- 상하이, 저장, 산둥, 하이난 등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의 경우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전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적인 경험 축적과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산시, 안후이, 장시, 광시, 충칭 등은 산업화 촉진이나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지역 현안을 고려하여 실물경제 진흥, 산업

10) 중국정부가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지방정부 공직자에 대한 업적평가 심사기준을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GDP 성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지표로 전환한 것도 전반적인 GRDP 하향 조정의 요인이 되었음. 또한 그동안 부풀려서 보고되었던 통계수치에 대해 각 지방정부가 정상적으로 수정한 것도 GR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주요 요인이 되었음. 올해 1월 랴오닝, 톈진, 네이멍구 3개 지역은 과거 통계수치에 거품이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해당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정했음을 발표함.

11)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는 매년 11~12월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함께 개최하는 최고위급 경제정책결정회의로, 당해 연도의 경제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 연도의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함.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이듬해 3월에 개최되는 양회를 통해 발표·확정함. 자료: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A4%AE%E7%BB%8F%E6%B5%8E%E5%B7%A5%E4%BD%9C%E4%BC%9A%E8%AE/AE/9686753?fr=aladdin>), 검색일: 2018. 3. 6).

고도화, 혁신능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

표 2. 2017년 중국의 지역(省)별 최우선 정책과제 비교

| 최우선 정책과제                 | 해당 지역                                                              |
|--------------------------|--------------------------------------------------------------------|
| 공급측 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의 심화     | 톈진, 장쑤, 푸젠, 광둥, 허난, 후난, 윈난, 산시, 지린                                 |
| 3대 난제 해소(三大攻坚战)          | 후베이, 네이멍구, 쓰촨, 구이저우, 간쑤, 칭하이, 닝샤, 시짱                               |
| 실물경제 진흥, 혁신능력 강화, 산업 고도화 | 산시, 안후이, 장시, 광시, 충칭, 헤이룽장                                          |
| 개혁·개방의 심화                | 상하이, 저장, 하이난, 산둥, 랴오닝                                              |
| 기타                       | 베이징(도시계획의 전면 시행, 4대 중심기능 제고),<br>허베이(징진지 협동발전 추진),<br>신장(사회 안정 유지) |

주: '3대 난제'는 중대 리스크, 빈곤, 생태환경 오염을 의미함.

자료: 각 성(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 톈진, 장쑤, 푸젠, 광둥, 허난 등 9개 지역에서 공급측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운데 비교적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공급체계의 개선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된 지역은 과잉생산 해소·산업 고도화·성장동력의 육성 및 발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

- 각 지방정부가 그동안 공급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과잉생산 및 과잉설비 해소에 일정한 성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 감축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거나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제시
  - 산업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하는 혁신능력의 제고, 공급체계의 효율화, 제조업과 인터넷 및 IT 기술의 융합, 서비스업 육성 등의 세부 산업정책들을 제시
  - 톈진, 후난, 산시 등의 지역은 일부 산업에서 과잉생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철강·석탄·시멘트 산업을 위주로 과잉생산·과잉설비 해소와 한계기업 청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 기존 전통산업 중심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첨단산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발전, 제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발전을 강조
- 지역별 공급측 개혁의 중점 방향을 살펴보면 톈진·광둥·산시는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의 가속화, 장쑤는 성장동력의 전환 촉진, 푸젠은 혁신발전, 허난·후난은 질적 성장과 효율 제고를 강조

표 3. 2018년 지역별 공급측 개혁의 주요 내용

| 지역 | 주요 내용                                                                                                                                                                                                                                                                                                                                                                                                                                    |
|----|------------------------------------------------------------------------------------------------------------------------------------------------------------------------------------------------------------------------------------------------------------------------------------------------------------------------------------------------------------------------------------------------------------------------------------------|
| 톈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발전 방식과 성장동력 전환,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 과학기술의 성장기여율 제고, 실물경제·금융·혁신·인적자원이 조화된 산업체계 구축으로 질적 성장 실현</li> <li>- 철강산업의 과잉생산설비 감축, 한계기업(僵尸企业) 청산; 산업단지 내 저효율·유휴 토지 활용 등 재고 감축; 채권발행, 채권치환 등의 조치를 통한 융자플랫폼의 레버리지 비율 하향 조정; 기업의 에너지·물류·용자 등의 비용 절감 및 감세; 투자 효율화를 통한 취약부문 보완</li> <li>- 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한 차세대 IT기술·신소재 등 10대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빈하이신구(滨海新区) 국가 군민융합 혁신시범구 및 중-EU 첨단제조산업단지 건설, 스</li> </ul> |

표 3. 계속

| 지역 | 주요 내용                                                                                                                                                                                                                                                                                                                                                                                                                                                                                                                     |
|----|---------------------------------------------------------------------------------------------------------------------------------------------------------------------------------------------------------------------------------------------------------------------------------------------------------------------------------------------------------------------------------------------------------------------------------------------------------------------------------------------------------------------------|
| 톈진 | <p>마트과학기술 산업발전 행동계획 실시,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 추진</p> <p>-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 기업 주체·시장 지향·산학연 융합을 핵심으로 한 기술혁신체계 완비, 중요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 및 산업화 추진, 과학기술형기업 육성</p>                                                                                                                                                                                                                                                                                                                                                          |
| 장쑤 | <p>- 공급체계의 질적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 실현</p> <p>- 과잉설비 및 노후설비 퇴출, 한계기업 청산, 중소형 도시의 과도한 부동산 재고물량 해소, 다양한 자본시장 구축을 통한 직접투자비용 제고,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비율 감축, 기업의 생산비용 및 원가 절감, 과학기술 혁신·인프라 분야에서의 취약점 보완</p> <p>-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 추진, 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네트워크화 수준 제고</p> <p>- 차세대 IT기술·신소재·고부가 장비제조업에서의 산업클러스터 집중 육성</p> <p>- 혁신주도형 발전 추진, 과학기술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가속화</p> <p>- 쑤난(苏南) 국가자주혁신시범구, 제조업혁신센터, 우시(无锡) 센서네트워크 혁신시범구 등 건설 추진</p>                                                                                                           |
| 푸젠 | <p>- 공급구조의 최적화: 주도산업의 규모화 발전 및 경쟁력 강화(신형 디스플레이·첨단IC회로·첨단 CNC 선반·산업용 로봇·스마트 전용설비·해양공정장비·공정기계), 전통산업 개조(방직·의복·식품·제련·건축자재), 신산업 육성(신에너지자동차·첨단장비·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바이오·신약·신소재, 동남연해 현대산업기지 조성), 현대서비스업 발전(서비스업 시범구 건설, 현대물류·전자상거래·과학기술서비스, 소프트웨어)</p> <p>- 내수확대: 인프라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민간투자에 대한 진입제한 완화, 관광레저·가사서비스의 질 향상</p> <p>-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공급효율 제고: 과학기술 혁신능력 강화,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능력 제고, 인재육성 강화</p>                                                                                                                                     |
| 광둥 | <p>- 공급측 개혁 심화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현대화된 경제체계 구축 촉진</p> <p>- 제조강성(制造强省) 건설 가속화: 「중국제조 2025」의 전면 실시를 통한 제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발전 촉진, 로봇산업 발전프로젝트 및 산업인터넷 혁신발전전략 실시, 첨단장비제조 산업벨트 육성, 전자정보산업 발전수준 제고, 바이오의약·신소재·신에너지자동차 등 신산업 발전 추진</p> <p>- 현대서비스업의 규모 확대 및 질적 발전: 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능력 강화, 주삼각 산업디자인 회랑 조성, 회계·감사·법률·건축·의료·교육·문화 서비스업 발전</p> <p>- 디지털경제 발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 발표(공유경제·모바일 결제·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정보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3개년 계획 실시, 주삼각 국가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 5G 이동통신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추진, 주삼각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클러스터 건설</p> |
| 허난 | <p>- 공급측 개혁 심화를 통한 효율 증진과 질적 성장 실현</p> <p>- 산업구조 고도화: 중앙정부가 부여한 석탄산업 내 과잉생산설비 퇴출 목표 실현, 재배업·제조업·서비스업에서의 공급측 개혁 프로젝트 추진, 현대물류·실버·교육·관광 등 신성장산업 육성, 국가빅데이터 종합시험구 건설</p>                                                                                                                                                                                                                                                                                                                                                     |
| 후난 | <p>- 석탄산업의 생산설비 감축, 레버리지 비율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 실물경제분야 기업의 비용 절감, 취약점 보완을 위한 전문프로젝트 실시방안 발표</p> <p>- 산업프로젝트 추진: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연구개발 및 산업화 추진, 자기부상장비 산업단지·신에너지 및 신소재 산업기지·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지·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산업단지 건설 추진</p>                                                                                                                                                                                                                                                                                                   |

표 3. 계속

| 지역 | 주요 내용                                                                                                                                                                                                                                                                                                                                                                                                              |
|----|--------------------------------------------------------------------------------------------------------------------------------------------------------------------------------------------------------------------------------------------------------------------------------------------------------------------------------------------------------------------------------------------------------------------|
| 후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고도화: 창주탄(长株潭)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군 건설, 신흥전략산업 육성(기업의 핵심 부품 및 기술의 수입대체 지원), 우위산업 발전(궈도교통·공정기계·항공우주·전력장비·바이오의약·CNC 선반·로봇·농업기계)</li> <li>- 성장동력 강화: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능력 강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 普惠金融)의 발전, 자본시장의 다양화, 직접금융의 발전</li> </ul>                                                                                                                                   |
| 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전: 신흥산업 클러스터 발전, 빅데이터 발전계획 실시,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응용 강화, 의료·교육·실버·문화·스포츠 분야에서의 인터넷 플러스 추진</li> <li>- 제조강성(制造强省) 건설: IC회로·5G 이동통신·항공엔진·신에너지 자동차·신소재 산업의 발전 가속화, 「중국제조 2025」 시범구 건설</li> <li>- 과잉생산(无效供给) 감축: 철강 생산능력 3,000만 톤 감축, 석탄 생산능력 1억 5,000만 톤 감축, 한계기업 청산 및 구조조정 강화</li> <li>-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개혁, 제조업·교통운수 산업에 대한 세율 인하, 중소기업의 납세 표준 상향 조정</li> </ul> |
| 지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고도화: 전통산업의 개조(자동차산업에서의 독자브랜드모델 경쟁력 강화, 신에너지 자동차·스마트카·정밀화공·바이오화공·농식품가공 발전), 우위산업의 발전 가속화(의약품·장비제조), 신성장산업 육성(5G 네트워크 상용시범사업 전개, 창춘 빅데이터산업클러스터 발전 추진, 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산업화 촉진), 서비스업 고도화(연구개발 및 디자인·정보서비스·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메이허커우(梅河口) 현대서비스업 시범구 건설 추진)</li> <li>- 법률에 의거한 한계기업의 청산 유도, 석탄·시멘트 산업에서의 과잉생산 해소, 국유기업 및 생산능력 과잉기업의 채무리스크 적극 해소</li> </ul>                         |

자료: 각 성(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 후베이, 네이멍구, 쓰촨, 구이저우, 간쑤 등 8개 지역은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을 포함하는 중대 리스크, 빈곤, 생태환경 오염을 3대 난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2018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채택

- 3대 난제 해결을 제시한 지역은 대부분 중·서부 내륙에 위치한 저발전 지역들로,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에 따라 문제 해결의 중점 분야를 다르게 제시
  - 대부분의 지역이 빈곤 구제와 극복을 우선한 반면 후베이, 네이멍구, 구이저우 등은 중대 리스크 예방과 해소를 강조
  - 특히 네이멍구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와 연계된 융자플랫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구이저우는 높은 정부 부채율 해결을 위해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각 지방정부는 빈곤 문제의 해결을 다른 해에 비해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모두 18개 지역에서 빈곤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빈곤 구제를 위해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계층이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구제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허베이, 푸젠, 하이난 등은 빈곤 구제를 산업지원이나 교육훈련지원과 상호 연계함으로써 빈곤계층의 자립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주력하고자 함.

표 4. 2018년 주요 지역의 '3대 문제' 해소 관련 정책

| 지역   | 주요 내용                                                                                                                                                                                                                                                                                                                                                                                                                                       |
|------|---------------------------------------------------------------------------------------------------------------------------------------------------------------------------------------------------------------------------------------------------------------------------------------------------------------------------------------------------------------------------------------------------------------------------------------------|
| 후베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정부채무의 규범화를 통한 부채 규모 통제, 은행 불량대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치 마련, 그림자은행·인터넷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li> <li>- 빈곤 구제: 104만 6,000명·17개 현(縣)에 대한 빈곤 구제, 빈곤계층(빈곤 노인층·빈곤 장애인)에 대한 보조 강화</li> <li>- 생태환경 보호: 환경 오염 예방 및 관리 3개년 행동계획의 실시,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오염원 축소, 석탄을 점차 천연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구조 개선, 중점 유역의 수질 개선</li> </ul>                                                               |
| 쓰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구제: 2018년 100만 명의 빈곤인구 구제 및 3,500개 빈곤 촌(村)의 빈곤 극복, 빈곤계층의 자립능력 강화, 빈곤 구제 업무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감독 강화</li> <li>- 생태환경 보호: 대기오염의 예방·통제·관리에 있어 타 지역과의 협력 추진, 오염원에 대한 총괄 관리, 현(縣)급 식수원에 대한 통합관리 추진, 도시 오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li> <li>-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정부채무에 대한 규범적 관리 및 부채 규모의 엄격한 통제, 지방금융 관리감독체계 완비, 인터넷금융 리스크에 대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관리, 공급주체의 다원화·주택보장채널의 다양화·구매와 임대 병행의 주택제도 수립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장기발전기제 수립</li> </ul> |
| 구이저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리스크 예방 및 해소: 지방정부 부채 차입에 대한 제한 및 규범적 관리제도, 정부부채에 대한 문책제도 시행, 지방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소액대출기업 관리방법 시행, 인터넷금융과 같은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li> <li>- 안전사고 예방: 탄광·교통·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중밀집장소 공공안전 강화</li> </ul>                                                                                                                                                                                               |

자료: 각 성(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 산시, 안후이, 광시, 충칭 등 6개 지역은 과도한 성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화를 통한 실물경제 진흥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및 산업 고도화(산시, 충칭), 혁신능력 강화(안후이, 헤이룽장), 실물경제 진흥과 성장동력의 전환(장시, 광시)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 실물경제의 진흥과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산업기반을 토대로 2018년에 중점 추진할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제조업 분야에서는 IT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서비스업에서는 IT 기술 응용과 문화 산업 등 현대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
- ICT 제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충칭은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해당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업 지원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조
- 장시와 광시는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효율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의 발전과 성장동력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단지와 인프라 건설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에 주력할 계획
- 헤이룽장은 산업화 촉진·혁신 주도·신성장부문의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진흥과 발전방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서비스업과 혁신의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표 5. 2018년 주요 지역의 실물경제 진흥 관련 정책

| 지역   | 주요 내용                                                                                                                                                                                                                                                                                                                                                                                                                                                                                                                                                                                                                                                                                                                                                                                                        |
|------|--------------------------------------------------------------------------------------------------------------------------------------------------------------------------------------------------------------------------------------------------------------------------------------------------------------------------------------------------------------------------------------------------------------------------------------------------------------------------------------------------------------------------------------------------------------------------------------------------------------------------------------------------------------------------------------------------------------------------------------------------------------------------------------------------------------|
| 충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고도화 촉진: 스마트산업의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빅데이터 분야 선도기업 유치를 통한 빅데이터 개발·응용 플랫폼 구축 가속화, 반도체·평면디스플레이·스마트로봇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신에너지자동차 생산 및 판매 규모 확대, 중점 산업부문에서의 산업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 응용 촉진, 스마트 산업단지·디지털 팩토리·스마트 팩토리 건설, 전면적인 품질향상 운동 전개</li> <li>- 현대서비스업의 발전: 소비고도화 추세에 맞춰 실물비즈니스의 전환 발전 장려, 온-오프라인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결합·판매와 체험 결합의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모바일 결제·공유경제 등 신소비 확대, 컨벤션산업·레저산업 발전 촉진, 스마트물류 발전 제고, 공동배송 등 신형 공급사슬 발전, 포용적 금융·녹색금융·과학기술금융 육성, 상장기업의 융자능력 강화, 직접융자규모 확대</li> <li>- 혁신 촉진: 첨단기술단지·농업과학기술단지·대학과학기술혁신센터의 업그레이드 발전 촉진, 과학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육성, 기술혁신협회 설립, 대학 내 인공지능·빅데이터·스마트제조·바이오의약 등의 전공과정 증설, 인재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시행</li> </ul>                                                                                                                                                |
| 장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경제 발전 강화 및 소비 고도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및 효율 촉진</li> <li>- 실물경제 발전 및 구조 최적화: 실물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메커니즘 완비,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 및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 비중 제고,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 촉진,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 품질향상을 위한 행동계획 추진</li> <li>- 유효투자 확대: 2조 위안 규모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추진, 징강산(井冈山) 및 지안둥핑(吉安桐坪) 공항 2기 건설 프로젝트 착공, 지우강(九江) 및 창장(长江) 유역 물류허브단지 건설</li> <li>- 소비고도화 촉진: 전통실물소비 확대 및 고도화 촉진, 관광업 및 건강의료산업 육성, 요양·문화소비 촉진, 도농 상업시설 건설 및 개조 프로젝트 실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서비스업의 발전 촉진</li> </ul>                                                                                                                                                                                                                                                                                                |
| 광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동력 전환을 통한 질적 성장 및 경제효율 제고</li> <li>- 제조업 육성: 제당·알루미늄·기계·제련 등 전통우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조 추진, 빅데이터와 실물경제·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가속화를 통한 전통우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신흥산업 및 첨단제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추진, 디지털경제·스마트제조·전자정보·바이오의약·신소재·신에너지자동차·현대해양산업 부문의 산업클러스터 및 선도기업 육성</li> <li>- 서비스업 육성: 전통서비스업의 고도화 추진, 인터넷 플러스 및 빅데이터를 매개로 한 소프트웨어·기술서비스·물류·금융·관광레저·요양 등 현대서비스업 적극 육성</li> <li>- 과학기술 혁신능력 강화: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지속 실시, 제당·알루미늄산업에서의 기술개발·스마트기계장비 기술혁신·차세대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응용 등 13개 과학기술 중대프로젝트 추진, 아열대농업생물자원 보호 및 이용·약용자원 개발·고효율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내연기관 등 17개 분야 과학기술혁신기지 건설</li> <li>- 중대 산업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신에너지 자동차·반도체·전자정보·중의약 분야 산업단지 건설 가속화, 베이부완(北部湾) 국가급 석유화학산업기지 건설 기획 수립, 국경간 물류단지·중-아세안 검사인증서비스집적구·국제문화관광레저클러스터·광시-아세안 곡물물류단지·난닝(南宁) 농산물거래센터·구이린(桂林) 문화관광도시 등 서비스업 클러스터 및 중대 프로젝트 건설 가속화</li> </ul> |
| 헤이룽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화 촉진·혁신 주도·신성장부문 육성을 통한 발전방식의 전환 및 구조조정 지속 추진</li> <li>- 산업 육성: 개혁과 혁신을 통한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신흥산업의 발전 촉진,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 촉진, 식품 및 식료품가공업의 지주산업화 발전 추진, 다칭(大庆)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가속화, 바이오의약·클라우드 컴퓨팅·로봇·청정에너지장비 등 신흥산업 발전 추진, 그래픽생산기지 건설, 자동차산업 육성 프로젝트 가속화</li> <li>- 신성장부문 육성: 관광·요양·스포츠·문화 산업의 융합발전 추진, 국경간 관광협력구 건설, 이동매체·디지털영상·디지털출판 등 신형 문화산업 발전 가속화, 요양 및 의약산업 발전 촉진, 과일·채소·신선식품·옥수수의 고품질·고효율 농업 발전, 벼·콩·잡곡·밀·축산물의 품질 제고 및 판매 확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지속 추진, 하얼빈(哈尔滨) 의약품거래센터·하이룬(海伦) 대두거래센터 등 전문시장 건설,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가속화, 첨단기술 개발 성과에 대한 산업화 응용능력 강화</li> </ul>                                                                                                                                                                                                  |

자료: 각 성(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한 단계 수준 높은 개방과 적극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를 위해서 전면적인 개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하이, 저장, 하이난 등 5개 지역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개혁·개방의 심화를 제시

- 각 지방정부는 2017년에 이어 수출입구조의 고도화(优进优出),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济贸易合作区) 건설을 통한 공급과잉산업의 해외 이전과 현지 생산네트워크 구축,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가속화,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을 주요 개방정책으로 제시
- 2018년 중앙정부가 서비스업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 확대 등을 강조하면서 각 지방 정부에서도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도 제고, 서비스무역 발전,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시행, 외자의 시장진입 제한 완화 등과 같은 조치를 적극 추진
  - 상하이, 저장, 산둥 등은 중국 내 경제가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개방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 산업 고도화 및 외국인투자 구조의 고도화가 강조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건설 등 서비스업 개방과 서비스무역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sup>12)</sup>
-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철도, 도로, 항구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유럽국가와의 경제협력(‘16+1’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범구 건설을 추진할 방침
- 대외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각 지역별로 독일(쓰촨, 산둥, 랴오닝), 프랑스(후베이, 쓰촨), 싱가포르(충칭), 한국(산둥, 장쑤, 광둥, 랴오닝) 등의 국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표 6. 2018년 주요 지역별 대외 개방 및 협력의 주요 내용

| 지역  | 주요 내용                                                                                                                                                                                                                                         |
|-----|-----------------------------------------------------------------------------------------------------------------------------------------------------------------------------------------------------------------------------------------------|
| 베이징 | - 서비스업 확대개방 시범정책의 전면 추진, 시범사업의 시범구 및 시범항목 건설<br>- 금융업 대외개방능력을 전면 제고하여 국제금융기구의 역내 설립 지원                                                                                                                                                        |
| 톈진  | -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제도혁신 강화, 금융혁신·국제무역·국제항공운송 등 서비스기능 완비,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 수립<br>- 고도의 개방형 경제 발전: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전면 시행, 외자의 시장진입 제한 완화, 서비스업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서비스무역 혁신시범도시 건설                                                              |
| 산둥  | -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 일대일로 종합시범구 건설 기획, 중·아세안 중소기업협력 고위급회담 유치<br>- 국경간 전자상거래·대외무역 종합서비스 혁신발전 등 대외무역방식의 전환 가속화, 무역편리화 수준 제고<br>- 서비스무역 발전 가속화: 지난(濟南)·칭다오(靑島) 등지에 서비스아웃소싱 시범도시 및 서비스수출기지 건설<br>-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심사·관리제도 개혁, 해외첨단기술기업과의 투자협력 지원 |
| 상하이 |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중점으로 하는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br>- 양산(洋山) 심해항 및 푸둥(浦東)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항 건설 모색<br>- 시장진입과 관련한 네거티브 리스트제도 전면 시행<br>-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홍콩·마카오·대만과의 경제무역협력 강화                                                       |

12)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지역은 상하이, 광둥, 푸젠, 톈진, 저장(이상 동부지역), 랴오닝(동북지역), 허난, 후베이(이상 중부지역), 충칭, 쓰촨, 산시(이상 서부지역)로 총 11개 지역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의 10개 성·시(省市)와 하얼빈신구(哈爾濱新區), 난징 장베이신구(江北新區),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 구이저우 구이안신구(貴安新區), 산시 시첸신구(西咸新區)의 5개 국가급 신구지역임.

표 6. 계속

| 지역  | 주요 내용                                                                                                                                                                                                                                                                                                                                                                                                                              |
|-----|------------------------------------------------------------------------------------------------------------------------------------------------------------------------------------------------------------------------------------------------------------------------------------------------------------------------------------------------------------------------------------------------------------------------------------|
| 장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연청) 산업단지 건설 가속, 중-카자흐스탄 물류협력기지·상하이협력기구(SCO) 국제물류단지 건설</li> <li>- 철도·항구·통신·전력망 등 국가간 인프라연계 프로젝트 참여 및 국제생산협력사업 전개</li> <li>- 국경간 전자상거래·대외무역 종합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 수출품의 품질 및 부가가치 제고, 첨단기술·첨단장비·핵심부품·고품질 소비재 등에 대한 수입 확대, 무역구조의 고도화(优进优出)</li> <li>-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 시행,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사업의 경험 도입</li> <li>- 장쑤-대만 산업융합발전 추진, 장쑤-마카오 협력단지 건설 가속화</li> </ul>                           |
| 저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시험구 개혁 심화, 닝보(宁波)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건설 및 중-동유럽간 '16+1' 경제무역협력시범구 건설기획 수립</li> <li>- 해관특수감독지역과 개발구 통합 관리 실시, 무역구조 고도화 전략 실시, 서비스무역의 대대적인 발전 추진</li> </ul>                                                                                                                                                                                                                                     |
| 푸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건설 가속화: 해상실크로드 연선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교류 확대, 주요 연선국가의 경제무역연락사무처 설립방안 모색, 우위산업에서의 국제생산협력 강화, 해외경제무역협력단지 건설 가속화</li> <li>-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가속화: 지속적인 제도혁신 추진, 푸저우(福州) 사물인터넷산업·샤먼(厦门) 항공기수리업·팡탄(平潭) 국제관광단지 등 중점 사업 추진 강화, 푸젠-대만 간 상품·서비스·자본·인재 교류 편리화 촉진</li> <li>-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발전: 수출품 품질 제고 및 수입 확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촉진, 진입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 홍콩·마카오와의 현대서비스업 협력 심화</li> </ul>         |
| 광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둥·홍콩·마카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가속화: 발전규획 구체화, 체제 및 제도 혁신 강화, 인재·상품·자본·정보 교류의 편리화 촉진, 광저우-선전-홍콩 간 고속철·강주아오(港澳)대교 건설 등 인프라 상호 연계 가속화</li> <li>- 자유무역시험구 개방도 제고: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투자 편리화 촉진, 양방향 투자 편리화를 촉진하는 자본계정체계 구축 모색, 금융자산거래플랫폼 건설 및 광둥·홍콩·마카오 간 금융시장 연계 추진</li> <li>- 무역강성 건설: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및 해외창고 건설 추진, 대외무역 종합서비스기업 발전 촉진,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및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의 발전 가속화, 고급소비재 및 첨단기술장비 수입 확대</li> </ul> |
| 후베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심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총체방안 전면 시행, 제도혁신을 통한 무역 편리화·투자 자유화·관리 법제화 추진, 전략적 신흥산업 및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지원 능력 강화</li> <li>- 대외개방의 전면적 확대: 국제생산협력 강화, 중-프랑스 우한(武汉) 생태시범도시·중-독일 징저우(荆州) 생태시범도시 건설 가속화, 국경간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추진</li> </ul>                                                                                                                                                     |
| 충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량장신구(两江新区) 개방 확대 및 국가디지털경제 산업시범구 건설</li> <li>- 중-싱가포르 협력: 상호 연계프로젝트 기획 수립, 협력분야 확대, 복합물류 시범프로젝트 전개</li> <li>- 자유무역시험구 제도혁신 심화: 투자 및 금융 분야 개방도 제고를 위한 제도혁신 강화</li> <li>- 물류: 중-유럽 간 정기열차편 확대, 국경간 우편운송 및 여행 채널 확대, 국경간 도로연계운송, 철도 및 해상 연계운송에 관한 제도혁신 모색</li> </ul>                                                                                                                         |
| 쓰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무역·국제생산·장비·원자재·에너지·인문 등 협력 심화</li> <li>- 중-독일, 중-프랑스, 중-이탈리아 등 국가별 산업단지 건설 추진</li> </ul>                                                                                                                                                                                                                                                                                      |
| 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국제협력 추진: 연선국가와의 통관협력 심화, 국제생산협력 확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해외투자 확대, 해외투자구조의 고도화</li> <li>- 외국인투자(FDI)의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통신·의료·교육·요양·신에너지자동차 분야에서의 개방 확대, 은행카드결제시장의 점진적인 개방, 외자 보험중개기업의 경영범위 제한 완화, 은행·증권·기금관리·선물·금융자산관리 기업에 대한 외자 지분제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 간소화</li> </ul>                                                                                                                              |
| 랴오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전략 적극 참여: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시험구 및 중-동유럽 간 '16+1' 경제무역협력시범구 설립, 연선국가 내 중점 산업단지 건설 추진, 장비제조·기술·서비스업의 해외투자 확대</li> <li>- 외국인투자 및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금융·통신·의료·교육 분야에서의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가속화, 다롄(大连)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건설, 선양(沈阳)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및 국가임항경제시범구 설립, 서비스무역 확대</li> </ul>                                                                                              |
| 지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대일로 전략 적극 참여, 연선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li> <li>- 창지투(长吉图) 개발개방선도구 발전전략의 심화, 투먼장(图们江)유역 협력개발 기획 수립, 창춘신구(长春新区) 건설</li> <li>-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자루비노항 프로젝트 추진, 대러시아 통관 및 운송 편리화 추진</li> </ul>                                                                                                                                                                                                            |

자료: 각 성(省)별 2018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 3. 지역별 2018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

#### 가. 동부

##### 1) 베이징: 징진지(京津冀) 지역균형발전의 심화 및 세계 일류 과학기술 중심지 건설

■ 2018년은 「징진지 협동발전규획(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이하 '징진지 발전규획') 2단계 프로젝트가 개시되는 해로, 1단계 프로젝트 기간에 비수도(非首都) 기능의<sup>13)</sup> 분산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를 순차적으로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향후에는 송안신구(雄安新区) 등 베이징 주변 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할 계획<sup>14)</sup>

- 베이징은 △ 제조업 △ 지역 도매시장(城区批发市场) △ 교육·의료 시설 △ 지방 행정기관 등 비수도 기능의 일부를 주변 도시로 분산·이전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해옴.<sup>15)</sup>
- 환경오염 유발이 심각한 기업과 노동집약적·자원의존형 제조업 공장을 이전 및 폐쇄하고 학교, 병원 등을 분산 배치했으며, 지방정부의 4대 행정기관 및 산하 부서의 일부 행정기능을 통저우(通州)로 이전

표 7. 징진지 협동발전규획의 기간별 발전 목표

|           | 기간              | 목표                                                     | 세부 추진과제                                                                                                                                                                                                                                                                                     |
|-----------|-----------------|--------------------------------------------------------|---------------------------------------------------------------------------------------------------------------------------------------------------------------------------------------------------------------------------------------------------------------------------------------------|
| 단계별<br>목표 | 1단계<br>(~2017년) |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 분산, 기본적인 협동발전 로드맵과 업무체계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의 순차적인 이전</li> <li>- 교통 일체화, 생태환경 보호, 산업 발전 및 이전 등 핵심 영역에서 우선적인 성과 달성</li> <li>- 개혁 및 시범사업의 순차적 추진</li> </ul>                                                                                                                        |
|           | 2단계<br>(~2020년) | 징진지 통합을 위한 추진과제 심화 실시, 베이징의 인구문제 해소 및 지역 교통 네트워크 심화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산업 연계발전 추진</li> <li>- 역내 발전 격차 축소</li> <li>- 징진지 지역의 통합 발전 및 상생 구도 형성</li> <li>- 생태환경 개선</li> <li>- 공공서비스 공동 구축 및 공유</li> <li>- 징진지 지역 내 일체화된 교통네트워크 구축</li> <li>- 베이징의 상주인구 2,300만 명 이내로 통제</li> <li>- 대도시병 등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소</li> </ul> |
|           | 3단계<br>(~2030년) | 징진지 지역의 통합 발전을 통해 국제 경쟁력과 영향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의 핵심 기능 최적화</li> <li>- 징진지 지역일체화 구도 구축 및 합리적인 지역경제구도 형성</li> <li>- 전반적으로 우수한 생태환경 조성</li> <li>- 공공서비스 수준 균등화 실현</li> <li>- 국제 경쟁력 및 영향력을 갖춘 중요 지역으로 성장</li> <li>- 중국의 지역경제발전 견인</li> </ul>                                                       |

자료: 이상훈, 김주혜(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한발해지역」, KIEP.

13) 중앙정부가 2014년 수도 베이징의 핵심 기능을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으로 제시한 이후 베이징은 핵심 기능 외 수도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행정기능, 공공서비스, 산업 등을 비핵심 기능(非首都功能)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분산과 이전을 추진해옴. 자료: 이상훈 외(201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14) 「北京市政府工作报告」(2018. 2. 2), 『北京日报』.

15) 「2018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解读——过去五年工作回顾」(2018. 1. 24), 『首都之窗』.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단계 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간으로 징진지 지역의 통합 발전을 목표로 승안신구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
- 베이징은 2017년 8월 허베이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징진지 지역의 통합 발전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해 징진지지역을 1시간 교통권으로 통합할 계획임.
- 승안신구에 중관춘 과학기술원(雄安新区中关村科技园)<sup>16)</sup>을 건설하여 베이징 중관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되 토지, 조세, 공공서비스 등의 추가 혜택을 보장할 계획
- 지난 2월 1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중국과 영국의 승안 금융과학기술 단지(雄安金融科技城) 공동 조성에 합의함.<sup>17)</sup>

■ 또한 베이징은 과학기술 혁신과 첨단산업의 발전을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고 중관춘 과학기술혁신시범구를 중심으로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 중심지로 발전할 계획<sup>18)</sup>

- 혁신 관련 인프라 설립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GR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6.0%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sup>19)</sup>
-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国家重大科技基础设施)<sup>20)</sup> 건설과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연구원, 뇌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
- 그래핀(Graphene), 신에너지자동차, 스마트 그리드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술혁신센터와 국가제조업혁신 센터를 신설
- 중관춘은 과학기술 성과의 상업화, 지식재산권 보호, 과학기술금융 개혁,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통관 편리화 등의 제도혁신에 주력하고 국제 표준 제정 및 연구, 글로벌 협력을 위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예정

## 2) 상하이: 개방과 혁신의 융합을 통한 질적 성장 추진

■ 상하이는 2차 산업에서의 혁신역량 제고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직할시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3조 위안을 넘어섰으며, 질적 성장을 이룬 성공적인 성장모델로 평가받음.

- 2018년 GRDP 규모가 3조 위안을 넘어선 지역으로 광둥, 장쑤, 산둥 등 11개 지역이 포함되나 직할시 중에는 상하이가 유일함.<sup>21)</sup>
- 상하이의 산업별 고정자산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하며, GRDP 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69.0%에 달하는 등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도는 베이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임.<sup>22)</sup>

16) 승안신구 중관춘 과학기술원은 2017년 12월 중관춘 과학기술원 관리위원회와 승안신구 관리위원회가 공동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토지, 조세,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우대정책이 실시될 계획임. 자료: 「北京推动科技企业落户雄安 政策红利可期(受益股)」(2018. 2. 5), 『金融界网』.

17) 「中英预签90亿英镑, 共建雄安新区金融科技城」(2018. 2. 6), 『凤凰网』.

18) 「解读北京政府工作报告」(2018. 1. 25), 『北京商报』; 「北京市政府工作报告」(2018. 2. 2), 『北京日报』.

19) 「赵莉: 以高质量发展为核心推动首都新发展——2018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精神解读」(2018. 1. 31), 『宣讲家网』.

20) 중앙정부가 2012~30년까지 추진 중인 중장기 과학기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에너지, 생명과학, 환경, 신소재,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대해 연구 실험실, 엑셀러레이터, 우주 관측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 국제협력을 지원할 방침.

21) 「11省市2017年GDP超3万亿」(2018. 1. 30), 『搜狐网』.

22) 「上海2017年经济数据公布 GDP突破3万亿是“水到渠成”」(2018. 1. 19), 『东方网』.



- 2차 산업 중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용 로봇, 첨단의료장비 등 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20%를 넘었으며, 특히 신에너지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면허 취득세 면제와 보조금 등 혜택에 힘입어 성장률이 50%에 달함.
- 또한 2017년 상하이의 GR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8%로 유럽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량은 전년대비 17.9% 증가한 41.5건에 달하며, GRDP 대비 환경보호 투자 비중이 3%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질적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sup>23)</sup>

■ 상하이는 올해 개방과 혁신을 융합한 질적 성장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도 제고와 자유무역항(自由贸易港) 건설, 장장 종합국가과학센터(张江综合性国家科学中心) 설립, 과학기술연구 상업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시티 조성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sup>24)</sup>

-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항 건설을 언급한 이후 현재 상하이, 저장, 광둥, 톈진, 쓰촨 등 10개 지역에서 자유무역항 건설을 연구 중이며, 특히 상하이에서 제도혁신 시범정책의 추진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
-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양산항(洋山港)과 푸둥(浦东)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도시로 건설될 계획으로, 구체적인 건설방안 및 제도혁신에 관한 토론이 현재 진행 중
- 자유무역시험구의 확정구역이 도시 내 일부 지역인 데 반해 자유무역항은 도시 전체를 포괄하며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시행, 투자 심사의 간소화, 자본계정 자유화, 자유무역계좌 확대 적용 등 제도혁신의 범위에서도 자유무역항이 더욱 개방적임.<sup>25)</sup>
- 상하이는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장장 종합국가과학센터와 관련된 37건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2018년에는 해저과학관측네트워크, 가스 터빈 실험시설 등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중국이 자체 개발한 GPS 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 로봇, 산업인터넷, 저탄소기술, 임상연구 등 첨단기술의 R&D 및 상업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sup>26)</sup>
- 특히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해 생산, 헬스케어, 식품안전 등 분야의 인공지능 시범프로젝트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 상하이 행동계획(智能上海行动)’을 실시하고, 빅데이터 종합시험구(大数据综合试验区) 조성을 통해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전략을 추진<sup>27)</sup>

### 3) 광둥: 광둥·홍콩·마카오 단일 경제권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29년 연속 중국 내 경제규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광둥성에서는 2017년 주변 지역과의 협력메커니즘 구축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이슈로 제기

- 2017년 광둥성의 경제규모는 8조 9,879억 위안으로 전국 GDP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투자는 전년대비 18.5%p 증가한 24.3%를 기록해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광둥성은 주삼각(珠三角)지역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샤먼(厦门)-선전(深圳), 구이저우(贵州)-광저우(广州), 난닝

23) 「2018上海经济目标透露了怎样的高质量发展决心?」(2018. 1. 23), 『看看新闻』.

24) 「上海自由贸易港方案或在今年全国两会后亮相」(2018. 1. 24), 『上海证券报』; 「上海市政府工作报告解读: 上海未来五年的七大目标」(2018. 1. 25), 『中研网』.

25) 「探索建设自由贸易港 谱写对外开放新篇章」(2018. 2. 5), 『中国水运报』.

26) 「上海加快推进科创中心建设 张江综合性国家科学中心多项目有望引领世界之最」(2018. 1. 31), 『每日经济新闻』.

27) 「上海将实行“智能上海”行动, 人工智能加速进家庭」(2018. 1. 23), 『澎湃新闻(上海)』.

(南宁)-광저우 고속철도와 러광(乐广)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교통인프라 조성을 지난 5년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함.<sup>28)</sup>

- 2017년에는 중앙정부에서도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등 주변 지역과의 협력메커니즘 향상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고, 광둥성 내 기업들도 제조업 혁신의 일환으로 이를 중시하고 있음.<sup>29)</sup>
  - 2017년 3월 리커창 총리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湾区) 건설 계획의 검토를 표명했고, 7월에는 '광둥·홍콩·마카오 간 협력 심화에 관한 대만구 건설 협정'이 체결
  -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광둥성 내 기업들은 단일 경제권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언<sup>30)</sup>

■ 광둥성 정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을 강조하고 인프라 건설, 시스템 통합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과학기술혁신·금융·해운 중심지로의 발전을 강조함.

- 광둥성은 홍콩·마카오 지역과 인재, 물류, 자본, 정보 등의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산업혁신·선진제조업·현대서비스업 협력단지를 발전시킬 계획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 계획강요'가 곧 발표될 예정<sup>31)</sup>
- 광저우-선전-홍콩 간 고속철도, 강주아오 대교, 홍콩-선전 간 항구 연계 등 인프라 건설 가속화를 통해 주요 도시 간 1시간 생활권 조성을 명시
  - 이를 위해 광둥성 철도건설투자그룹은 2018년 철도건설 투자액을 작년보다 25% 늘릴 계획을 발표했고, 광둥성 발전개혁위원회는 이미 광둥·홍콩·마카오 도시 간 철도건설 계획의 편제 작업을 시작<sup>32)</sup>
- 또한 내륙과 홍콩 간 노스톱 통관·검역 수속(一地两检) 등 시스템 통합을 위한 18개 조치를 실시할 계획

#### 4) 산둥: 성장동력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 전통산업 중심의 단일 산업구조를 지닌 산둥성은 2017년 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정부 역시 산둥성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을 강조

- 산둥성의 산업생산 중 전통산업의 비중은 70%에 달하고 전통산업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70%에 달하는데, 이러한 단일 산업구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취약<sup>33)</sup>
- 2017년 산둥성은 과잉생산 해소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8) 「广东2017年GDP达8.99万亿元 连续29年居中国首位」(2018. 1. 25), 『中国新闻网』.

29) 「2017广东年度经济风云榜揭晓 寻找新时代的创新榜样」(2018. 1. 16), 『金羊网』.

30) 대표적으로 광둥성 선전(深圳)시에 본사를 둔 텐센트의 마화팅 회장은 2017년 3월 광둥·홍콩·마카오의 지역일체화 발전을 통해 '세계 수준의 지역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중국판 실리콘밸리의 효시가 되어야 한다고 전인대 대표로서 제언했고, 6월에는 홍콩에서 개최된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에 대한 포럼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없던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① 과학기술의 발전 ② 혁신환경의 정비 ③ 광둥, 홍콩, 마카오 각 정부의 표준화된 협력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음. SMBC(2017. 8. 17), 「广东·香港·マカオビッグベイエリア構想 (2): 枠組み協定の主な内容」.

31) 「广东省发改委: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预计近期获批」(2018. 1. 26), 『证券时报·e公司』.

32) 「广东今年铁路投资超500亿, “铁路+土地”解资金难题」(2018. 2. 13), 『第一财经』.

33) 「山东由“汗水经济”转向“智慧经济”」(2018. 2. 1), 『中青在线』.

장비제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2017년 산둥성은 자원의존형 산업부문에서의 과잉생산 해소를 적극 추진하여 255만 톤의 석탄 생산설비를 감축하고 78개의 한계기업을 퇴출시킨 반면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소재, 해양산업, 장비제조업 등 12개 분야 167개 프로젝트에 대해 1조 2,465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진행<sup>34)</sup>
- 장비제조업의 산업생산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45%로 제고되는 등 장비제조업이 자원의존형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sup>35)</sup>
- 그러나 산둥성은 장기간 국유기업과 전통산업에 의존한 성장방식이 지속되면서 규모는 크지만 경쟁력은 갖추지 못한(大而不强) 취약한 산업구조가 고착되면서 성장방식의 전환에 제약이 되고 있음.
- 2018년 양회 기간에 산둥성 지도부는 민영경제가 발전한 저장성과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산둥성 민영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언급
- 중앙정부 역시 산둥성 성장동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둥성 성장동력(新旧动能) 전환 종합시험구 건설 총체규획」을 2018년에 발표
- 해당 문건은 시험구 건설 등 산둥성의 성장동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단기 계획을 제시하고 2028년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sup>36)</sup>

■ 산둥성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성장동력의 전환을 강조하고 신기술·신산업·신업체·신모델(四新)의 발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 스마트 산업화, 산업 간 융합, 브랜드 고급화(四化) 촉진방안을 제시<sup>37)</sup>

- 성장동력의 전환을 위해 산둥성은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이용한 전통산업의 고도화,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스마트 산업화, 산업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정책 목표로 제시(표 8 참고)
- 산둥성은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에너지·신소재, 현대해양, 의료건강 등 5대 신산업과 첨단화학공업, 고효율의 현대농업, 문화·창의, 여행, 현대금융서비스 등 5대 우위 산업('5+5')을 육성하여 이 산업들의 2차 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60%까지 제고할 계획

표 8. 산둥성의 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
| 산업 고도화  |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등 차세대정보기술을 이용한 전통산업 고도화 실현    |
| 스마트 산업화 | 지식, 기술, 창의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첨단기술 산업 육성                              |
| 산업 간 융합 | 1차·2차·3차 산업 간 융합, 생태여행과 전·후방산업 간 융합, 군민 간 융합발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 브랜드 고급화 | 상품, 기업, 업종, 로컬 브랜드(区域品牌) 및 지명표기(地理标志) 브랜드 육성                   |

자료: 「山东将重点发展新旧动能转换“十强产业”」(2018. 1. 31), 『人民网』.

34) 「山东建新旧动能转换重点项目库 计划投资12465亿元」(2017. 12. 2), 『新华网』.

35) 산둥성의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10% 이상으로, 공업부문 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인 6.9%를 상회함. 「工业影响经济增速 2017年东部地区经济分化明显」(2018. 1. 30), 『21经济网』.

36) 「山东:推动新旧动能转换 全面提升发展质量和效益」(2018. 2. 27), 『中国电子报』.

37) 「山东将重点发展新旧动能转换“十强产业”」(2018. 1. 31), 『人民网』.

- 산둥성은 6,000억 위안 규모의 성장동력 전환기금을 조성하여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인재양성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며 산둥성 내 지역별로 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sup>38)</sup>
- 일레로 엔타이(烟台)시는 성장동력 전환을 위한 192개 시(市)급 중점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공항(临空)경제 시험구, 서비스아웃소싱 시범구 등 28개 분야의 시험구를 조성할 계획<sup>39)</sup>

## 5) 장쑤: 스마트제조업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

■ 중국의 주요 제조업 기지 중 하나인 장쑤성은 스마트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쑤 제조’에서 ‘장쑤 창조·스마트제조(智造)’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장쑤성은 2010년대 초반까지 2차 산업이 GRDP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광둥성과 산둥성을 상회하고 있음.<sup>40)</sup>
- 장쑤성은 지주산업인 제조업에 스마트 팩토리 건설, 중점 업종의 스마트화 개조, 혁신능력 향상, 서비스체계의 구축 등을 더해 스마트제조 분야의 역량 강화를 모색해왔음.<sup>41)</sup>
-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이 실시된 이후 장쑤성 정부는 「중국제조 2025 장쑤성 행동강요」 등 스마트제조업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고, 2017년 6월에는 「장쑤성 13·5 스마트제조 발전규획」을 발표하는 등 성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제조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음.<sup>42)</sup>
- 2017년 장쑤성의 공업 부가가치는 3조 5,00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첨단기술산업과 신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42.7%와 31.0% 증가
- 또한 장쑤성은 2017년 기준으로 GRDP 대비 R&D 투자 비중 2.7%,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 건수 22.4건, 첨단기술기업 수 1만 3,000개 이상이였으며, 과학기술의 성장기여율이 62%에 달하는 등 전국 상위의 혁신역량을 차지<sup>43)</sup>

■ 장쑤성은 2018년에도 IT 제조, 첨단장비제조 등 첨단제조업 육성에 주력하고, 국제적인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할 계획

- 전자정보, 장비제조 등 산업생산규모 1조 위안 이상인 산업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인공지능, 그래픽,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분야의 산업생산규모 1,000억 위안 이상인 첨단제조업 기지를 구축하고자 함.<sup>44)</sup>
- 「중국제조 2025」 양쯔강 도시군(扬子江城市群) 시범지역 내 산업인터넷을 발전시켜 ‘인터넷+제조업’ 발전전략을 중점 추진하고 스마트 생산라인과 스마트 팩토리 건설을 확대하고자 함.<sup>45)</sup>

38) 「山东由“汗水经济”转向“智慧经济”」(2018. 2. 1), 『中青在线』.

39) 「2018山东两会热词“看规划”: 新旧动能转换」(2018. 1. 26), 『齐鲁网』.

40) 이상훈, 이한나, 노수연 (2016), 「중국의 지역별 산업 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장쑤성」, KIEP; 「2017年江苏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2018. 2. 13), 『中国江苏网』.

41) 「江苏: 智能制造孕育新工业」(2015. 8. 21), 『中国电子报·电子信息产业网』.

42) 「江苏省政府办公厅关于印发江苏省“十三五”智能制造发展规划的通知」(2017. 6. 14), 『江苏省政府』.

43) 「江苏GDP五年连跨三个万亿台阶 年均增长8.4%」(2018. 1. 26), 『人民网-江苏频道』.

44) 「江苏将大力发展先进制造业 深入推动创新驱动发展」(2018. 1. 26), 『证券时报』.

45) 양쯔강 도시군은 장쑤성 남부에 위치한 난징(南京), 전장(镇江), 창저우(常州), 우시(无锡), 쑤저우(苏州), 양저우(扬州), 타이저우(泰州), 난통(南通) 8개 도시를 포함함.



- 정부업무보고에서 양쯔강 도시군 시범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쯔강 도시군 내 난징, 전장(镇江), 창저우(常州), 우시(无锡), 쑤저우(苏州), 양저우(扬州), 타이저우(泰州), 난통 등 8개 도시의 산업 고도화를 성급(省级) 전략으로 채택<sup>46)</sup>
-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 지원 및 인재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 핵심은 혁신시험구 건설, 혁신플랫폼 구축 등 과학기술 혁신에 있음.
- 대표적으로 쑤난(苏南) 국가자주혁신시험구 건설, 산업기술연구기관·지식재산권시장 등 혁신플랫폼 구축, 국가급·성급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을 포함한 난징 장베이(江北)신구 및 우시 국가 센서네트워크 혁신시험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 나. 중부

### 1) 후베이: 창장신구(长江新区) 유치로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

- 후베이성의 장기발전목표는 중국 내 대표적인 지역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것으로, 중부지역에서 제일 먼저 샤오강(小康)사회를 달성하고,<sup>47)</sup> 2035년에는 경제규모를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전국 상위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고자 함.
- 후베이성은 국가급 발전전략인 '중부굴기(中部崛起)'와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주요 거점지역 중 하나로, 중부지역에서 허난성·후난성과 함께 지역 거점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음.
- 후베이성은 2017년 경제성장률이 7.8%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그동안 8~9%대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 2019년 샤오강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sup>48)</sup>
- 후베이성의 2017년 GRDP 규모는 약 3조 7,000억 위안으로, 전국 31개 지역 중 9위를 차지
- 후베이성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 거점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우한(武汉)의 '국가중심도시'<sup>49)</sup> 기능 강화를 언급하고 우한에 국가급 신구인 '창장(长江)신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
- 집적회로, 디스플레이 패널, 베이더우 GPS,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각각 1,0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되 상양(襄阳)시를 신에너지자동차 중심지로, 징먼(荆门)시를 민간항공산업기지로 조성하고자 함.
- 2016년 칭화유니그룹이 우한시에 240억 달러 규모의 3D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공장을 건설하고, 2017년에는 BOE가 우한시에 10.5세대 LCD 공장을 설립하면서 후베이성에 집적회로 및 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음.
- 상양시는 후베이성 로컬자동차기업 동평(东风)의 본사가 위치한 곳으로, 동평은 최근 르노·닛산과 협력해 전기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음.
- 우한시는 2017년 국가중심도시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도시 발전을 가속화해 2017년 1조 3,000억 위안 규모인 우한시

46) 「新坐标 新视野 新理念 新举措」(2018. 1. 27), 『新华日报』.

47)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중국정부는 2020년 GDP 및 1인당 GDP를 각각 2010년의 2배로 늘리는 것을 샤오강사회 달성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음.

48) 「湖北预计2019年全面建成小康社会」(2017. 5. 9), 『湖北日报』.

49) 국가중심도시는 각 도시의 종합경제력, 과학기술혁신 능력, 국제 경쟁력,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선도력, 교통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05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2017년 우한과 정저우, 2018년 시안이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 총 9개 존재함.



의 GRDP를 2021년 2조 위안으로 늘리고, 2035년에는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고자 함.

- 특히 우한시 중북부에 조성되고 있는 창장신도시(长江新城)를 푸둥·쑤안신구와 같은 국가급 신구로 승격시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에 유리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해외 우수인재가 편히 거주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첨단 신도시로 개발해 후베이성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함.

## 2) 허난: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 개선

■ 허난성은 제조업의 규모는 크지만 첨단산업의 비중이 작고 에너지·원자재 의존도가 높으며 환경오염 유발 산업의 비중이 큰 점이 발전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허난성은 장비제조, 전자정보, 식품가공, 석탄·석유화학, 제련, 전자재 등의 산업이 발전한 제조기지 중 하나임.
- 허난성은 산업생산액이 전국 5위 수준에 달하나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아 공업기업의 이윤 증가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중국 500대 기업에 드는 역대 기업이 9개에 불과할 정도로 로컬기업의 경쟁력이 약한 지역임.<sup>50)</sup>
- 2017년 제련·전자재·화학·화학발전 등 전통산업이 전체 공업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2%에 달함.<sup>51)</sup>

■ 허난성은 올해 공급측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산업구조 개선을 제시하고 △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군과 「제조업 혁신센터」 조성 △ 기업의 기술개조 추진 △ 첨단기술기업 유치와 기술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대성(制造大省)」에서 「제조업 강성(制造强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허난성의 정저우(郑州)·뤄양(洛阳)·신샹(新乡)은 2017년 5월 장쑤성 쑤난(苏南)지역, 광둥성 주장서안(珠江西岸)지역, 후난성 창주탄형(长株潭衡) 지역에 이어 네 번째로 「중국제조 2025」 시범도시군으로 지정되면서 스마트제조 시범사업, 기술 인재 육성, 대중 창업 촉진 등 첨단제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sup>52)</sup>
- 농기계·물류장비·의료기계·동력전자·돈육가공 분야에서 로컬 선도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해 혁신센터를 조성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며,<sup>53)</sup> 기업이 기술개조와 기술력 증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5,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4,20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
- 허난-대만 간 스마트장비 협력 촉진 및 산업이전 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행사를 개최하고, 유럽·미국·한국·일본 등 국가와 첨단제조기술분야에서의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기술과 자본의 유치를 확대하고자 함.<sup>54)</sup>

## 다. 서부

### 1) 충칭: 기술혁신과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질적 성장

50) 「工信委主任王照平：产业结构优化升级 建设制造强省」(2018. 1. 7), 『河南日报』.

51) 河南省统计局国家统计局(2018. 2. 28), 「2017年河南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52) 「河南要打中国2025示范区 技改投资将达4200亿」(2018. 1. 9), 『新浪网』.

53) 「河南省首个制造业创新中心成立」(2018. 1. 5), 『河南日报』.

54) 「河南要打中国2025示范区 技改投资将达4200亿」(2018. 1. 9), 『新浪网』.

■ 충칭시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나 자동차 등 지주산업의 부가가치 고도화 능력 부족으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면서 2017년에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충칭시는 2017년 9.3%의 성장률을 기록해 목표치였던 10%를 달성하지 못했고, 2018년 목표성장률도 8.5%로 대폭 하향 조정함.
  - 2018년 목표성장률(8.5%)은 1997년 충칭이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가장 낮게 설정된 목표치임.<sup>55)</sup>
- 특히 자동차산업의 성장률은 2015년 20.2%, 2016년 11.7%, 2017년 6.2%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한 상황임.<sup>56)</sup>
  - 충칭시가 육성 중인 스마트카, 신에너지자동차, 로봇 등 신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낮은 상황임.<sup>57)</sup>

■ 충칭시는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 혁신역량 강화·스마트산업 발전 등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 설정<sup>58)</sup>

- 충칭시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R&D 투자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킴.<sup>59)</sup>
  - 지역의 혁신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GR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이래 전국 평균수준을 하회하는 1%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충칭시는 향후 2020년까지 이 수치를 2.5%까지 끌어올릴 계획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충칭시는 하이테크산업단지·농업 과학기술단지·대학 과학기술혁신단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강화, 200개의 과학기술 R&D 플랫폼 유치 및 육성, 산업 기술혁신협회(技术创新联盟)<sup>60)</sup>를 통한 관련 서비스 및 교류협력 기회 제공 등의 세부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12개 스마트산업 관련 기업과 인재를 적극 유치해 2022년까지 연생산업 1조 위안을 달성하고자 함.<sup>61)</sup>
  -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분야의 주요 선도기업 유치, 개발응용 플랫폼 설립, 관련 전공학과 증설 등을 추진
  - ICT 분야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 로봇 관련 산업에서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스마트카·신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여 산업 고도화를 추진

## 2) 쓰촨: 빈곤 해결 및 '일대일로' 협력 확대

■ 쓰촨성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3대 난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내부적인 불균형 해소를 강조함.

- 쓰촨성은 지난 5년간 농촌지역의 빈곤인구가 750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빈곤발생률은 11.5%에서 2.7%로 급감했으나 계속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누적으로 전면적인 복구 및 구제 작업이 절실한 상황

55) 충칭시의 1997년 경제성장 목표치는 7.8%였음.

56) 「重庆：2018年经济目标增速18年来最低 聚焦“补短板”」(2018. 1. 29), 『每日经济新闻』.

57) 「2018年重庆市GDP目标8.5% 或创18年来增速新低」(2018. 1. 26), 21世纪经济报道.

58) 「重庆市人民政府工作报告」(2018. 2. 7), 『华龙网-重庆日报』.

59) 「重庆：2018年经济目标增速18年来最低 聚焦“补短板”」(2018. 1. 29), 『每日经济新闻』.

60) 충칭시 경제정보화위원회(重庆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주도로 2017년 5월 신설됐고, 산업별 기술혁신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인적 자원, 정보 교류 및 대외 협력기회 등을 제공

61) 「重庆：智能产业多点开花」(2018. 1. 30), 『中国经济网』; 「【数说两会】速览重庆市政府工作报告 2018重庆要干哪些事儿?」(2018. 1. 26), 『新华网』.

- 2018년 빈곤 퇴출을 계획한 현(縣)의 수는 전년대비 2배 많은 30개에 달하는데, 총 100만 명의 빈곤인구와 3,500개의 빈곤 촌(贫困村)을 대상으로 하는 빈곤 구제 정책을 추진할 계획<sup>62)</sup>
- 쓰촨성은 2017년에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95회 발생하였고, 특히 2017년 8월 발생한 주자이거우(九寨沟) 지진은 피해액만 1억 1,000만 위안을 상회하였으며, 2018년 2월에도 칭촨(靑川)과 간쯔(甘孜)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여진 및 산사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sup>63)</sup>
- 쓰촨성은 교육, 위생, 대출, 취업 분야의 취약계층을 위한 4대 빈곤 구제기금(四项扶贫基金)을 활용하여 정책 사각 지대에 놓인 계층을 지원할 방침<sup>64)</sup>
- 쓰촨성은 2017년 5월 중국 내 최초로 108억 위안 규모의 이 기금을 조성한 후 2017년 12월까지 175만 세대를 대상으로 빈곤 구제 사업을 진행함.

■ 쓰촨성은 2018년의 핵심 성장동력을 ‘개방’으로 선정하고 혁신·창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와 일대일로 관련 국제협력력을 확대해나갈 방침<sup>65)</sup>

- 창업공간,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 등 쓰촨성의 혁신·창업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내외 혁신인재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청두(靑都)시는 국내외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창업 보조금 지급을 800위안에서 1,2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무상 실시, 청두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를 대거 유치할 계획<sup>66)</sup>
- 내륙지역 개방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 일대일로 관련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sup>67)</sup>
- 쓰촨성은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 251 행동계획(一帶一路251行動計劃)」의 심화 실시를 재차 강조하면서, 동남아, 남아시아, 중동, 동아시아 등 일대일로 주요 지역으로 매년 1,000개의 기업을 진출시켜 무역·투자, 문화교류, 관광, 원자재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계획<sup>68)</sup>
- 쓰촨성은 자유무역시험구 내 주요 거점을 활용하여 텐푸신구(天府新區)와 하이테크산업단지는 항공, 청바이장(靑白江)은 철도, 루저우(瀘州)는 수운을 중심으로 한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sup>69)</sup>

### 3) 산시: 첨단 제조업, 화학공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고도화

■ 산시성은 에너지 산업부문에서의 공급측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면서 비에너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나, 주요 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이 비교적 낮아 고도화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sup>70)</sup>

62) 「看, 政府工作报告的20句暖心话」(2018. 1. 27), 『四川日报』.

63) 「近5年四川3级以上地震有554次 去年3级以上95次」(2018. 1. 9), 『四川在线』.

64) 「央视《新闻联播》点赞四川: “绣花功夫”打好脱贫攻坚战」(2018. 2. 11), 『华夏经纬网』; 「9字极简版! 读懂政府工作报告, 看看四川2018怎样干!」(2018. 1. 26), 『四川在线-华西都市报』.

65) 「四川省2018年政府工作报告」(2018. 2. 6), 『四川日报』; 「2018年四川省人民政府工作报告提到的这些词, 你读懂了吗?」(2018. 1. 30), 『新华网』.

66) 「成都将出台支持海外留学人才来蓉创业意见」(2018. 2. 8), 『四川新闻网』.

67) 중국 서부 주요 3개 지역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비교했을 때, 산시성과 충칭시는 ‘일대일로’에 언급된 것이 각각 2회, 4회에 불과했고 해당 ‘액션 플랜’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으나, 쓰촨성은 ‘일대일로’를 8회 이상 언급하며 향후 중점 추진할 ‘행동계획’을 강조함.

68) 쓰촨성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일대일로 251 행동계획(一帶一路251行動計劃)」은 20개 국가와의 적극 협력, 50개의 중요 프로젝트 추진, 100개의 우수기업 선정 및 시범사업 시행 등을 골자로 함. 청두시의 경우 2018년 현재 166개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100억 달러를 상회함.

69) 「四川自贸区今年或出台自贸区条例」(2018. 1. 28), 『成都商报』.

70) 「非能源工业成为陕西工业发展新亮点」(2017. 10. 26), 『陕西日报』.

- 산시성의 공업을 에너지와 비에너지로 구분할 때, 2017년 에너지부문은 5.5%, 비에너지부문은 10.2%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체 공업에서 비에너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함.<sup>71)</sup>
- 산시성 정부가 중점 관리 중인 공업제품 64종 중 약 40%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신에너지자동차(31.2%), 화물차(99.6%), 엔진(120%), 태양전지(68.4%) 등 비에너지 분야가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그 외 의약제조,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분야의 성장률은 13%를 상회함.
- 다만 비에너지 산업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가 부진하고 관련 기초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sup>72)</sup>

■ 산시성은 전통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첨단제조업, 화학공업 등 비에너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R&D 투자 확대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sup>73)</sup>

- 2018년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공급측 개혁의 지속, 에너지 수요 증대 및 안정적인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산업에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산시성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산시성은 첨단제조업 분야 중에서 민간 항공기 및 무인기(농업, 재난구조, 소방, 기상관측 용도) 관련 R&D 프로젝트와 기업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둘 방침
- 화학공업의 경우 첨단 인프라 확충과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2020년까지 산업규모 3,000억 위안, 연평균 성장률 20% 이상을 달성하고자 함.<sup>74)</sup>
- 산시성 정부는 올해 10개의 신규 화학공업 프로젝트에 1,385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으로, 특히 산시성의 석탄자원을 활용한 화학제품제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sup>75)</sup>

## 라. 동북

### 1) 랴오닝: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산업 고도화 추진

■ 2010년대 초반부터 경기 둔화에 처했던 랴오닝성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향후 전국 평균수준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 고도화 추진이 필요

- 랴오닝성은 비효율적인 국유기업 운영, 저조한 투자 등으로 2011년부터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침체되는 추세였으나 공업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면서 2017년 GRDP 성장률이 4.2%를 기록
- 3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던 공업 부가가치는 기존 국유기업의 혁신 및 새로운 첨단기술기업의 성장 등에 힘입어 2017년 플러스 성장률(4.4%)로 전환되었고 공업기업의 이윤은 1,000억 위안을 초과하며 전년대비 94% 증가<sup>76)</sup>

71) 「陕西省规上工业总产值同比增长18.8%」(2018. 1. 23), 『陕西日报』.

72) 「华商报: 专家展望2018陕西经济」(2017. 12. 20), 『华商报』.

73) 「2018年陕西省政府工作报告」(2018. 2. 2), 『陕西传媒网』; 「收获2017 展望2018——陕西省政府工作报告解读」(2018. 1. 26), 『西安晚报』.

74) 「陕西推进现代化工产业向高端化发展」(2018. 1. 2), 『中国产业经济信息网』; 「加快民机、无人机、轨道交通三大产业发展 促进陕西装备制造迈向中高端」(2017. 12. 27), 『西部网』.

75) 「总投资1385亿元 陕西2018将新开工10个化工项目」(2018. 2. 25), 中国煤炭交易中心.



- 2017년 인텔(약 27억 달러), 뉴질랜드 Richina(富国; 9억 달러) 등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FDI가 전년대 비 77%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영업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sup>77)</sup>
-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랴오닝성은 정부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 목표로 전국 평균수준의 성장세 회복을 명시함.
- 다만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특징인 랴오닝성은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주산업인 장비제조업을 포함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sup>78)</sup>

#### ■ 2018년 랴오닝성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 및 관련 프로젝트의 실시를 강조함.

- 랴오닝성은 중장기적으로 첨단장비제조업, 원자재, 현대농업, 핵심 기술장비, 핵심 기술혁신 및 R&D 기지를 하나의 산업벨트로 연결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건설(一带五基地)하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첨단장비제조업기지 육성을 위해 독일과의 산업협력을 추진 중인 중독(선양) 첨단산업기지의 조성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밖에 민용 항공기, 중형장비 분야의 제조 및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
- 또한 기존의 선양(沈阳)경제구, 선푸(沈抚)신구를 각각 과학기술 및 혁신 중심지로 선정하여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
- 랴오닝성은 정부업무보고 직후 「5대 지역 건설 및 발전 3년 행동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여 역내 5대 중점 발전 지역의 기능을 설정함(표 9 참고).
- 신산업 3년 연동계획의 일환인 100개의 스마트제조 및 스마트서비스 시범 프로젝트(试点示范项目)를 지속 추진하여 스마트제조, 녹색제조, 서비스형 제조의 발전을 도모
- 랴오닝성은 2017년 「중국제조 2025 랴오닝 행동강요」를 통해 이미 28개의 성급 스마트제조 및 스마트서비스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10개의 우수기업을 선정한 바 있음.<sup>79)</sup>

표 9. 랴오닝성 내 5대 중점 발전지역

| 중점발전 지역      | 주요 기능                       |
|--------------|-----------------------------|
| 선양경제구        | 과학기술혁신 중심, 물류관리 체계 및 스마트도시군 |
| 랴오닝 연해경제벨트   | 동북아 해운 중심, 임항(临港)산업, 해양경제   |
| 랴오시베이(辽西北)지역 | 고효율 특색농업, 생태보호구(屏障区) 건설     |
| 선푸신구         | 혁신발전시범구 건설                  |
| 현급 행정구역(县域)  | “1현 1산업(一县一业)” 추진           |

자료: 「辽宁五大区域战略瞄准高质量发展」(2018. 2. 7), 『经济日报』.

76) 「2017년辽宁经济运行: 筑底企稳 稳中向好」(2018. 1. 27), 『人民网』; 「发力供给侧 迈向“三级跳”——辽宁工业转型振兴新观察」(2018. 1. 30), 『新华网』.

77) 「振兴路上再攀登——“三个扭转”带动辽宁经济企稳回升」(2018. 1. 27), 『新华网』.

78) 「以工业供给侧改革为基础 辽宁全面推进制造业强省建设」(2018. 1. 5), 『新华网』.

79) 「发展智能制造 推动产业向中高端迈进」(2018. 1. 28), 『辽宁日报』.

## 2) 지린: 지주산업 고도화를 통한 제조 강성(强省) 육성

■ 2017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인 지린성은 2018년에도 주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질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

- 2017년 지린성의 경제성장률은 5.3%로, 지역 대표기업 및 민영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sup>80)</sup>
- 창춘(长春)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치(一汽) 자동차(0.6%), 지린(吉林) 석유화학(19.5%)의 2017년 생산액 증가, 2017년 신규 등록 기업 수(8.1%) 증가, 민영기업의 매출액 증가(7%) 등이 지린성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sup>81)</sup>
- 지린성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강조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8년 목표성장률을 2017년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7% → 6%), 2018년 핵심 정책으로 주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실물경제 진흥을 강조
- 공업부문의 부가가치 목표증가율은 2017년 실적치(5.5%)보다 약 0.5%p 높은 6.0% 전후로 제시

■ 지린성은 2018년 주요 정책과제로 전통 지주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브랜드 파워 강화, 의약건강·장비제조 등 우위산업의 산업단지 육성을 내세움.

- 지린성은 이치자동차 그룹의 홍치(红旗), 지에팡(解放) 등 독자브랜드 양성을 장려하고 신에너지자동차, 커넥티드카(CAV) 개발을 지원할 계획
- 자동차제조업은 지린성의 전통적인 지주산업으로 제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0%를 초과했으며, 자동차 생산규모는 연간 약 254만 대(2016년)로 전국 4위를 차지<sup>82)</sup>
- 2018년 완공 예정인 창춘신구 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단지(총투자규모 34억 위안)는 신에너지자동차 연구개발 및 완성차 생산기지로 조성될 계획이고, 현재 1기 공사가 완료된 국가 스마트 커넥티드카 응용 시범기지(총투자규모 1억 4,000만 위안)에서는 홍치 등 독자 브랜드의 연구개발이 장려될 계획<sup>83)</sup>
- 의약건강, 장비제조, 광전자정보(光电信息) 등 우위산업 분야의 산업단지 조성 및 선도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
- 1934년 창춘에 백신 생산기지가 설립된 후 지린성은 의약건강 분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백신 생산기지로 발전했으며,<sup>84)</sup>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산업단지로 통화(通化) 국가의약첨단기술구, 야타이(亚泰) 의약산업원 등을 지정함.
- 또한 창춘신구 내 항공우주 데이터정보 산업단지, 창춘 조립식건축 산업단지 육성에도 노력할 예정

80) 「2017年东三省经济增速均超4%整体回暖 发展新产业」(2018. 1. 30), 21世纪经济报道.

81) 「吉林将实施四大工程重塑产业竞争力」(2018. 1. 30), 『新华社』.

82) 최지원(2017), 「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KIEP; 「年产260万辆! 吉林省汽车产业链概况浅析」(2017. 11. 8), 新材料在线.

83) 「吉林将超常规支持发展新能源和智能网联汽车」(2018. 1. 26), 『中国新闻网』.

84) 박진희, 최재희(2017), 「중국 주요 지역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정책 및 시사점」, KIEP.

## 4. 평가 및 시사점

■ 올해 중국 각 지역은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 중시 기조에 부응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질적 성장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베이징, 상하이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발전, 개방 확대 등을 질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는 경향이 나타남.
- 산둥성, 장쑤성 등 연해지역에 위치한 제조기지는 질적 성장을 위해 「중국제조 2025」 노선에 맞춘 제조업의 스마트화, 산업 간 융합 확대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임.
- 허난성, 산시성, 지린성 등 내륙의 제조기지는 기술 혁신·R&D 강화를 통한 로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시함.

■ 일부 지역은 징진지 균형발전,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급 발전전략,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창장신구 조성 등 같은 지역 발전전략 추진에 특히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징진지 지역은 올해 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지역산업 간 연계발전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며, 징진지 지역 균형 및 협동발전의 상징인 승안신구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
- 일대일로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쓰촨은 내륙지역 개방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대일로 관련 국제협력에 노력할 계획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발전정책을 새롭게 내세운 광둥성은 주변 지역과의 인프라 연계와 시스템 통합을 강조
- 후베이성은 내륙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기 위해 우한의 창장신구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력할 방침임.

■ 지역별 질적 성장 정책의 추진으로 첨단산업 협력, 기술 협력 등 협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발전전략이 새로운 협력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

- 장쑤성은 질적 성장의 일환으로 IT 제조, 첨단장비제조 분야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등 분야에서 혁신정책에 맞는 협력방안이 필요<sup>85)</sup>
- 허난성은 제조업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장비제조·전자정보·식품가공 등 분야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질적 발전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는 랴오닝성, 창장신구 조성에 노력 중인 후베이성에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외자기업 유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광둥성과 주변 지역과의 협력메커니즘 확대 정책에 따라 단일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자기업은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홍콩을 통한 대중국 수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sup>86)</sup>
- 쓰촨성은 개방 확대를 위해 해외 인력 유치와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중시할 계획으로 청두시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

85) 이한나(2016. 11. 30), 「중국 장쑤(江苏)성의 최근 혁신정책 동향」, KIEP.

86) KOTRA(2018), 「2018 권역별 진출전략 : 2권 중국/동남아/서남아」, KOTRA 자료 17-131.

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보조금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쓰촨성 기업과 함께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 위한 일대일로 관련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거나 시범정책을 활용하는 협력전략이나,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촉진과 성공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전략, 양국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정부가 질적 성장을 정책기조로 삼고 공급측 개혁·리스크 해소·제도 개혁 등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향후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고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협력방안과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각 지방정부는 개별 국가와의 산업협력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단순한 기업 유치에 아닌 산업 고도화와 첨단산업 육성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그동안 한중 협력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기초한 제조업 협력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고도화 방향과 내수시장 확대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기술혁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각 지방정부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육성과 대외협력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양국 정부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협력사업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과 진출 확대를 모색해야 함.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FTA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한중 FTA를 양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 한중 FTA 협정문의 제17.25조와 제17.26조에서는 각각 지방경제협력과 한중 산업단지를 활용한 협력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특히 인천-웨이하이 간 지방경제협력이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한중 산업단지는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향후 후속협상을 통해 산업단지의 협력분야와 지역범위를 확대하여 대중 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올해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전면적인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과 투자 분야에서의 개방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중국 진출 시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업과 투자 분야 개방 확대를 위한 시범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중국 내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은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sup>87)</sup>
  - 자유무역시험구는 국내법에 근거한 서비스업 개방 시범사업이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개정되고 있으므로 우리 서비스기업의 중국 진출 시 이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양국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일체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양국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87) 중국은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의 개방 확대, 투명성 제고, 진입전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 등을 목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음.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적용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전국 대상),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 상하이·톈진·푸젠·광둥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으나,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6~1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제도로 현재는 효력을 상실함.



- 중국과 홍콩의 경제통합은 중-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을 근간으로 하되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실험을 시범지역인 광둥성에서 우선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중 협력도 FTA 협정을 근간으로 하되 성공적인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광둥성 사례와 같이 한중 간 경제협력에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한중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전략 중에서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一帶)’ 전략, ‘신남방정책’과 ‘일로(一路)’ 전략은 상호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므로 양국의 전략이 중첩되는 중국의 동북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과 화남지역(광둥, 광시, 푸젠)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IEP**

## [부록] 중국 지도



자료: <https://blog.naver.com/son0334/10074292519>(검색일: 2018. 4. 12).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박진희, 최재희. 2017. 「중국 주요 지역 바이오의약산업 육성정책 및 시사점」. KIEP.
- 이상훈, 이한나, 노수연. 2016. 「중국의 지역별 산업 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장쑤성」. KIEP.
- 이상훈, 김홍원, 최지원, 김주혜. 2017. 중국 주요 지역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EP.
- 이한나. 2016. 「중국 장쑤(江苏)성의 최근 혁신정책 동향」. KIEP.
- 최지원. 2017. 「중국 동북진흥정책 평가 및 신정책 방향 분석」. KIEP.
- KOTRA. 2018. 「2018 권역별 진출전략: 중국/동남아/서남아」. KOTRA 자료 17-131.
- 「중국 지방 지도부에 韓 '589세대급' 류링허우가 주력 부상」. 2018. 『연합뉴스』. (2월 5일).
- 「중국 지방 GDP 거품빼기...올해 성장목표 대거 하향」. 2018. 『연합뉴스』. (1월 26일).

### [중문자료]

- 甘肃省人民政府. 2018. 「2018年甘肃省政府工作报告」.
- 江西省人民政府. 2018. 「2018年江西省政府工作报告」.
- 江苏省人民政府. 2018. 「2018年江苏省政府工作报告」.
- 广东省人民政府. 2018. 「2018年广东省政府工作报告」.
- 广西壮族自治区人民政府. 2018. 「2018年广西壮族自治区政府工作报告」.
- 贵州省人民政府. 2018. 「2018年贵州省政府工作报告」.
- 吉林省人民政府. 2018. 「2018年吉林省政府工作报告」.
- 宁夏回族自治区人民政府. 2018. 「2018年宁夏回族自治区政府工作报告」.
- 内蒙古自治区人民政府. 2018. 「2018年内蒙古自治区政府工作报告」.
- 福建省人民政府. 2018. 「2018年福建省政府工作报告」.
- 北京市人民政府. 2018. 「2018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
- 四川省人民政府. 2018. 「2018年四川省政府工作报告」.
- 西藏自治区人民政府. 2018. 「2018年西藏自治区政府工作报告」.
- 山东省人民政府. 2018. 「2018年山东省政府工作报告」.
- 山西省人民政府. 2018. 「2018年山西省政府工作报告」.
- 上海市人民政府. 2018. 「2018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
- 陕西省人民政府. 2018. 「2018年陕西省政府工作报告」.
- 新疆维吾尔自治区人民政府. 2018. 「2018年新疆维吾尔自治区政府工作报告」.
- 安徽省人民政府. 2018. 「2018年安徽省政府工作报告」.
- 辽宁省人民政府. 2018. 「2018年辽宁省政府工作报告」.
- 云南省人民政府. 2018. 「2018年云南省政府工作报告」.
- 浙江省人民政府. 2018. 「2018年浙江省政府工作报告」.
- 重庆市人民政府. 2018. 「2018年重庆市政府工作报告」.
- 天津市人民政府. 2018. 「2018年天津市政府工作报告」.
- 青海省人民政府. 2018. 「2018年青海省政府工作报告」.
- 河南省人民政府. 2018. 「2018年河南省政府工作报告」.
- 河北省人民政府. 2018. 「2018年河北省政府工作报告」.

- 海南省人民政府. 2018. 「2018年海南省政府工作报告」.
- 湖南省人民政府. 2018. 「2018年湖南省政府工作报告」.
- 湖北省人民政府. 2018. 「2018年湖北省政府工作报告」.
- 黑龙江省人民政府. 2018. 「2018年黑龙江省政府工作报告」.
- 李超, 程强. 2018. 「地方两会透露经济增速很可能回落——区域经济研究系列之十二」. 华泰证券.
- 「11省市2017年GDP超3万亿」. 2018. 搜狐网. (1月 30日)
- 「14位“60后”副部长新迎两会」. 2018. 凤凰网. (1月21日).
- 「2017广东年度经济风云榜揭晓 寻找新时代的创新榜样」. 2018. 金羊网. (1月16日)
- 「2017年江苏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中国. 2018. 江苏网. (2月13日)
- 「2017年东三省经济增速均超4%整体回暖 发展新产业」. 2018. 21世纪经济报道. (1月30日)
- 「2017年辽宁经济运行: 筑底企稳 稳中向好」. 2018. 人民网. (1月27日)
- 「2018山东两会热词“看规划”: 新旧动能转换」. 2018. 齐鲁网. (1月26日)
- 「2018上海经济目标透露了怎样的高质量发展决心?」. 2018. 看看新闻. (1月 23日)
- 「2018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解读——过去五年工作回顾」. 2018. 首都之窗. (1月 24日)
- 「2018年四川省人民政府工作报告提到的这些词, 你读懂了吗?」. 2018. 新华网. (1月 30日)
- 「2018年陕西省政府工作报告」. 2018. 陕西传媒网. (2月 2日)
- 「2018年重庆市GDP目标8.5% 或创18年来增速新低」. 2018. 21世纪经济报道. (1月 26日)
- 「9字极简版! 读懂政府工作报告, 看看四川2018怎样干!」. 2018. 四川在线-华西都市报. (1月 26日)
- 「看, 政府工作报告的20句暖心话」. 2018. 四川日报. (1月 27日)
- 「江苏省政府办公厅关于印发江苏省“十三五”智能制造发展规划的通知」. 2017. 江苏省政府. (6月14日)
- 「江苏将大力发展先进制造业 深入推动创新驱动发展」. 2018. 证券时报. (1月26日)
- 「江苏: 智能制造孕育新工业」. 2015. 中国电子报、电子信息产业网. (8月21日)
- 「江苏GDP五年连跨三个万亿台阶 年均增长8.4%」. 2018. 人民网-江苏频道. (1月26日)
- 「工信委主任王照平: 产业结构优化升级 建设制造强省」. 2018. 河南日报. (1月 7日)
- 「工业影响经济增速 2017年东部地区经济分化明显」. 2018. 21经济网. (1月30日)
- 「广东2017年GDP达8.99万亿元 连续29年居中国首位」. 2018. 中国新闻网. (1月25日)
- 「广东今年铁路投资超500亿, “铁路+土地”解资金难题」. 2018. 第一财经. (2月13日)
- 「广东省发改委: 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预计近期获批」. 2018. 证券时报·e公司. (1月26日)
- 「吉林将实施四大工程重塑产业竞争力」. 2018. 新华社. (1月30日)
- 「吉林将超常规支持发展新能源和智能网联汽车」. 2018. 中国新闻网. (1月26日)
- 「年产260万辆! 吉林省汽车产业链概况浅析」. 2017. 新材料在线. (11月8日)
- 「发力供给侧 迈向“三级跳”——辽宁工业转型振兴新观察」. 2018. 新华网. (2月30日)
- 「发展智能制造 推动产业向中高端迈进」. 2018. 辽宁日报. (1月28日)
- 「北京推动科技企业落户雄安 政策红利可期(受益股)」. 2018. 金融界网. (2月 5日)
- 「非能源工业成为陕西工业发展新亮点」. 2017. 陕西日报. (10月 26日)
- 「四川省2018年政府工作报告」. 2018. 四川日报. (2月 6日)
- 「四川自贸区今年或出台自贸区条例」. 2018. 成都商报. (1月 28日)
- 「上海2017年经济数据公布 GDP突破3万亿是“水到渠成”」. 2018. 东方网. (1月 19日)
- 「上海加快推进科创中心建设 张江综合性国家科学中心多项目有望引领世界之最」. 2018. 每日经济新闻. (1月 31日)
- 「上海市2018年政府工作报告」. 2018. 人民网. (1月 31日)
- 「上海市政府工作报告解读: 上海未来五年的七大目标」. 2018. 中研网. (1月 25日)
- 「上海自由贸易港方案或在今年全国两会后亮相」. 2018. 上海证券报. (1月 24日)

- 「上海将实行“智能上海”行动，人工智能加速进家庭」. 2018. 澎湃新闻(上海). (1月 23日)
- 「山东建新旧动能转换重点项目库·计划投资1 2 4 6 5亿元」. 2017. 新华网. (12月2日)
- 「山东将重点发展新旧动能转换“十强产业”」. 2018. 人民网. (1月31日)
- 「山东由“汗水经济”转向“智慧经济”」. 2018. 中青在线. (2月1日)
- 「山东：推动新旧动能转换 全面提升发展质量和效益」. 2018. 中国电子报. (2月27日)
- 「陕西推进现代化工业产业向高端化发展」. 2018. 中国产业经济信息网. (1月 2日)
- 「成都将出台支持海外留学人才来蓉创业意见」. 2018. 四川新闻网. (2月8日)
- 「收获2017 展望2018——陕西省政府工作报告解读」. 2018. 西安晚报. (1月 26日)
- 「【数说两会】速览重庆市政府工作报告 2018重庆要干哪些事儿？」. 2018. 新华网. (1月 26日)
- 「新坐标 新视野 新理念 新举措」. 2018. 新华日报. (1月27日)
- 「【两会】陕西省政府工作报告展望篇：2018陕西这么干！」. 2018. 新华网. (1月 26日)
- 「辽宁五大区域战略瞄准高质量发展」. 2018. 经济日报. (2月7日)
- 「以工业供给侧改革为基础 辽宁全面推进制造业强省建设」. 2018. 新华网. (1月5日)
- 「赵莉：以高质量发展为核心推动首都新发展——2018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精神解读」. 2018. 宣讲家网. (1月 31日)
- 「重庆：2018年经济目标增速18年来最低 聚焦“补短板”」. 2018. 每日经济新闻. (1月 29日)
- 「重庆：智能产业多点开花」. 2018. 中国经济网. (1月 30日)
- 「中英预签90亿英镑，共建雄安新区金融科技城」. 2018. 凤凰网. (2月 6日)
- 「地方两会谋划经济高质量发展 海南取消部分市县GDP考核」. 2018. 人民日报. (1月 29日)
- 「地方两会重申“不以GDP论英雄”释放积极信号」. 2018. 东方网. (1月 29日)
- 「振兴路上再攀登——“三个扭转”带动辽宁经济企稳回升」. 2018. 新华网. (1月27日)
- 「总投资1385亿元 陕西2018将新开工10个化工项目」. 2018. 中国煤炭交易中心. (2月 25日)
- 「探索建设自由贸易港 谱写对外开放新篇章」. 2018. 中国水运报. (2月 5日)
- 「河南省首个制造业创新中心成立」. 2018. 河南日报. (1月 5日)
- 「河南要打造中国制造2025示范区 技改投资将达4200亿」. 2018. 新浪网. (1月 9日)
- 「解读北京政府工作报告」. 2018. 北京商报. (1月 25日)
- 「湖北预计2019年全面建成小康社会」. 2017. 湖北日报. (5月 9日)
- 「华商报：专家展望2018陕西经济」. 2017. 华商报. (12月 20日)

## [일문자료]

SMBC. 2017. 「広東・香港・マカオビッグベイエリア構想 (2) : 枠組み協定の主な内容」. (8月17日)

## [기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weoselgr.aspx>).  
 百度百科.